

“SK, LG에 2兆 지급” 배터리戰 ‘극적 합의’

‘거부권’ 시한 하루 남기고 타결
SK “美 조지아 2공장 건설 박차”

세기의 배터리 소송을 이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에 전격 합의했다. ▶관련기사 2·3면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했다. 양사는 이날 오후 공동 합의를 발표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 원(현금 1조 원+기술사용료 1조 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며 “관련한 국내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장기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한미 행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카운티, 커머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분쟁과 관련,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 나아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김중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4차 유행’ 경고에도 공항은 ‘인산인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4명으로 집계, 서울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600~700명대를 오르내리며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제주 등지로의 봄나들이를 위해 나온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에 반기 든 뭇,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폭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20% 가까이 오른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재조사를 예고했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핵심 부동산 공급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공사가 그린벨트 해제 놓고 대립
관련 박 발언에 “정치적” 평가도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균등한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가 더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며 “서울

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내년 공시가격 동결을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91% 인상했다. 서울 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 4채 중 한 채(24.2%)는 공시가 9억 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4면에 계속 정용욱 기자 dragon@

집 대신 규제 짓던 4년 서울집값 46% 올랐다

스페셜 리포트

文정부 수요억제 ‘패닉바이닝’ 부추겨
26번 대책에도 “정책오판” 오명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4년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수요 억제책에 매몰돼 공급 정책을 놓쳤단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5.9% 뛰었다. 영등포구(56.3%)가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56.1%)와 동작구(53.7%), 양천구(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밖에서는 세종(59.7%)과 경기 성남시(57.7%)·광명시(53.6%)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택지 공급 축소, 대출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면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 만에 6·19 대책, 그로부터 두 달 후 8·2 대책을 내놓은 건 이런 배경에서다. 당시만 해도 대출·전매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초강수 대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총 26번 내놓아야 했다. 금융은 더 옥죄었고 주택 관련 세금도 더욱 강화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엔 노후도 강화, 실거주 요건 도입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단위: %, 2017년 5월 8일~2021년 4월 5일 기준)
※ 출처: KB국민은행



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누그러들다 더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지속해서 내놓은 반면 주택 공급엔 소극적이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입주는 빨라야 다른 정권에서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정권 초부터 도심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던 이유다.

최민섭 한국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세금 등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며 “시장에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주지 못했다”고 정책 실패 요인을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주택·토지 정책에서 공(功)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경기 부양용 토건 공사나 부동산 감세 등 투기 조장책을 안 쓴 건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에게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 경영 지원**
세무 지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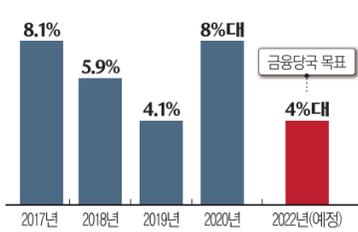
IBK기업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상담 센터: 1195(2021.03.25) / 2022.03.24 / 통상통과 관하여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99-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후 면담이 있을 경우 상담 신청, 금융소비자센터(030-0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co.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중 불만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간 내내 지속적인 연락으로 의견 교환 시 이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민원)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설명에 대해 단 일회성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를 위한 사설이나 개인이 발송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0-7400, e-mail: kb00@kb.co.kr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묶는다

금융당국, 관리방안 곧 발표
DSR 40% 적용 대상 확대
고소득자 분할 상환 의무화
청년 LTV 완화 방안 거론도

가계대출 증가율



금융 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관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선 대출의 문턱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여당이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청년 등 대출 실수요자는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비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상승했다.

금융 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자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자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다 중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엔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 확인됨에 따라 청년 우대책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객산 기자 jinsan@

LG·SK 배터리 합의 결국 바이든이 승자

적극 중재로 IP보호·기후변화 다 챙겨
조지아주 일자리 6000개도 지켜 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을 전격적으로 끝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자가 됐다. 바이든은 양사 합의를 중재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 현지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사업을 놓고 지재권 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타격을 받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에 도달해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분쟁은 2월 ITC가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배터리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장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을 앞두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SK의 시장 철수로 26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 블룸버그는 "SK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면 조지아주에서만 최대 6000개 넘는 배터리 제조업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인프

라 확대와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아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분쟁으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특히 조지아주는 과거 공화당 텃밭이었다가 지난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긴 곳인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이 지역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녹은 "이번 합의는 조지아주 고임금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통령이 ITC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지켜내 조지아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명분으로 삼아 왔던 지재권 보호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양사가 합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모두를 지키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에 앞서 미국 내 12개 정부 부처와 자동차업체들이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LG와 SK는 지난해 로비 활동에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고객사인 포드 역시 합의 소식을 반겼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두 공급업체의 자발적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AZ백신 접종 오늘부터 재개... 30세 미만 제외

대체 백신 추가 도입 시급

정부가 혈전 생성 논란으로 보류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2일 재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득이 접종 후 매우 드문 특이혈전증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상회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백신으로 얻는 이득과 위험을 연명별

로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2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된다. 대상자는 238만 명 규모로, 이 중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27%(64만 명) 정도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면 30세 미만이라도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지 않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약 13만5000명이다.

문제는 30세 미만 대상자에게 접종할 다

른 백신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약 732만 명분으로, 이 가운데 58.9%(약 433만 명분)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지한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물량은 모두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할 분량이다. 안센 백신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지만,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현 상황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신할 백신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2분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안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안전속도 5030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켜줍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줄어도?

[사고건수]	[중상가능성]	[통행시간]
13.3% 감소	20%p 감소	2분 차이

* 안전속도 5030 도입 전후 효과 분석 및 충돌 실험 결과

배상·보상 표현 대신 '지급'... 서로 1兆씩 양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극적'이라고 표현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뒀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측의 합의금 '2조 원' 역시 배터리 업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도 한몫했다. 나아가 양측이 밝힌 입장문에는 '배상' 또는 '보상' 표현 없이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채웠다.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 시점에서 나온다.

"더이상 끝다가는 日·中 경쟁사에 뒤처진다" 분쟁 종식 결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 전기차시장 공략 절박함도 작용 LG "동반자적 관계 구축" SK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 선도"

◇SK 배상·보상 표현 없이 '지급'으로 = 양사가 발표한 공동 합의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표현돼 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 원(현금 1조 원+로열티 1조 원)을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며 "관련한 국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 측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SK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합의금은 사실상 '배상액'이다. 다만 합의문에 이런 내용은 한 글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합의금을 2조 원 수준에 맞추되 SK 측의 강력한 요구(배상 및 보상 표현 삭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에서 나온다.

김중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공동 입장문 역시 마찬가지다.

두 CEO는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 이해관계 맞물려 '2조' 합의= SK이노베이션도 추가 입장문을 냈다. 로열티를 포함해 2조 원을 내야 하는 만큼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SK 측은 "장기간 지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한미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루한 소송전 탓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LG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들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



LG vs SK 배터리 소송 일지

연도	일	내용
2019년	4월 29일	LG화학, ITC·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5월	LG화학, 경찰에 SK이노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6월 10일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9월 3일	SK이노, ITC·델라웨어 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9월 27일	LG화학, ITC·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 '특허침해' 소송
2020년	2월 14일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SK이노 조기패소 예비결정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SK이노 '소 취하' 청구 기각
2021년	2월 10일	ITC, 예비심결 인용 최종판결 "SK이노 배터리 수입 10년 금지"
	4월 1일	ITC, LG엔솔 '특허침해' 소송서 "SK이노 특허 침해 안 해" 예비심결
	4월 10일	LG·SK, 美 행정부 거부권 시한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응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기업의 소송 합의금은 절충점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중요하다. 소송의 성패와 견줄 만큼 중대한 숫자다. 이런 면에서 2조 원의 합의금은 LG 측과 SK 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미 정부 역할론도 대두= 글로벌

경쟁사들의 빠른 성장에 대한 두 회사의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 강자인 일본의 파나소닉을 비롯해 막대한 내수 시장에 힘입어 급성장해온 중국의 CATL, BYD 등은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경쟁 업체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을 가장 활발히 전개하는 유럽 대륙에서도 최근 노스볼트 등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출현하며 경쟁 구도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한·미 정부에서 합의를 압박한 것도 주된 영향으로 꼽힌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앞세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LG와 SK의 소송은 걸림돌이었다. 배터리 공급 부족 국면에서 두 업체 중 하나라도 미국에서의 사업에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곧 미국 전기차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양사의 합의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국내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양사에 합의를 중용해왔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건설 보유부지 공개매각 공고

1. 매각(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 보유부지(전농동) 매각내용

(단위: 원)

지번	토지(m ²)	건물(m ²)	공급 예정가격	참가자격	입찰토지 매각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농동 620-130	88.1	112.4	3,250,000,000	자격제한없음	공급예정가격 이상 입찰금액으로 매각하고 2인 이상 신청시 경쟁 입찰(최고가격 응찰자)로 낙찰자 결정

나. 매각 일정 및 입찰 장소

구분	입찰	장소	구비서류
등록마감	04/20 (15:00까지)	새롬빌딩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10길 3)	입찰참가신청서, 매입신청서, 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입찰일시	04/21 (11:00까지)		
계약기한	05/07		

2. 입찰, 낙찰에 관한 사항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 보유부지(전농동) 응찰자(입찰자, 이하 동일함)는 공급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입찰보증금으로 등록마감까지 롯데건설 명의계좌(국민은행 465101-01-283637)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전자접수, 이메일접수 등 불가), 또한 롯데건설이 교부하는 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위 서류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서류 역시 본 입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응찰자의 입찰보증금,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이 된 경우, 사정의 변경이 발생되어 입찰이 취소된 경우 등에 있어 입찰보증금 등은 응찰자가 제출한 계좌에 환불한다. 위 환불은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하여 환불한다.

라. 낙찰자는 입찰일시에 응찰자 중 최고가격 낙찰자로 정한다. 동일한 최고가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 및 낙찰자는 롯데건설이 진행하는 입찰절차, 입찰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기한 이내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롯데건설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명도완료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80%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권을 취소하고(낙찰자의 지위 박탈),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등록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위약벌로서 롯데건설에 귀속처리되며, 낙찰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80% 매각대금)이 이루어지면 이를 진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잔금납부일(세입자 명도 후 30일)까지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권을 취소한다(낙찰자의 지위 박탈, 계약 매수인의 지위 박탈).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롯데건설에 귀속처리되며, 낙찰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롯데건설의 승인 없이 해당 필지에 대하여 전대, 양도, 재산상속, 저당권 및 제한물건의 설정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 본 입찰 필지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바, 기존 임차인의 명도에 관련된 책임은 롯데건설에 있는 것으로 한다. 롯데건설은 매매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기존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기한을 매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이러한 경우 낙찰자의 매매잔금 납부의무도 임차인 이주 이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이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연장된 위 3개월까지도 임차인을 이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쌍방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쌍방은 이에 대한 손해(예를 들어 낙찰로 인한 손해,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아. 전농동 620-130 토지 바로 후면에는 전농동 620-7 대 3.6㎡ 토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응찰자 및 낙찰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추후 위 토지로 인하여 인원이 발생하거나, 개발행위에 제한이 발생하거나, 또는 경계 문제, 기타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입찰 및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4. 일반사항

가. 응찰자, 낙찰자는 롯데건설이 진행하는 입찰 및 낙찰절차, 계약체결절차, 입찰 및 낙찰에 관한 결정, 계약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응찰자는 롯데건설이 교부하는 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위 서류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응찰자, 낙찰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서류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라. 본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롯데건설 담당자로부터 교부받는다.

5. 등록·입찰 및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입찰 등록시	입찰 및 계약 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입찰보증금 은행 입금표(전표) 법인인 경우 위 서류에 준함 입찰, 낙찰 및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주인등록증(입찰 참가당시) 등록접수증 매입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택사업1부(02-3480-4456, 02-3480-4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 큰 투자'로 글로벌 시장 경쟁

LG, 美공장에 7.7조원 투입 SK, 2년 내 21.5GWh 양산 유럽서도 '공격 투자' 행보



미국 오키호주의 LG와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1공장 건설 현장.

'배터리 소송전'을 극적으로 마무리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양측 모두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전사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합의 전에 '미국 사업' 철수까지 언급했던 SK이노베이션은 불확실성을 걷어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의 덕에 당장 내년 1분기 양산을 앞둔 9.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새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착공한 11.7GWh 규모의 제2공장 역시 애초 예정대로 2023년 양산을 준비한다. 이 두 곳 공장의 생산능력을 합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양산 규모는 총 21.5GWh에 달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25년까지 미국 배터리 공장 등에 독자적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7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현재 5GWh 규모는 최대 75GWh까지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소 2곳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GM과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도 상반기 중 두 번째 공장

투자를 결정한다. 이 내용까지 더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총 7조7000억 원을 투자해 140GWh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양사의 공격 투자는 유럽에서도 이어진다. SK이노베이션은 1월 유럽 현지법인인 SKBH(SK Battery Hungary)에 11억4800만 달러(약 1조2700억 원)를 출자했다. 세 번째 공장을 위해서다. 새 공장은 연산 30GWh 규모로 헝가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유럽 전략을 본격화한다. 2018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배터리 공장을 준공한 이후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다. LG 측은 생산 규모를 60GWh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총량 중 LG에너지솔루션은 19.2%의 점유율로 중국 CATL(31.7%)에 이어 2위였다. SK이노베이션은 5%로 6위를 기록 중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도 풀겠다”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與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없던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부동산 규제 완화 경쟁을 벌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나선 박영선 후보는 35층 증고 제한 완화와 분양가 억제 등 전제로 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주변 집값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

“상승폭 年 10% 이내로 제한”

시세 90% 반영 정부와 대치

“실수요자 DTI·LTV 완화”엔

금융위 “청년층에 혜택” 화답

절문도 들고 나왔다. 1년에 공시가격 상승폭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커지는 조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 역시 2035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과 부뒀힌다. 올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으로만 19.9% 상승했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정부는 원칙론= 정부는 일단 원칙론을 천명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직후인 이달 초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당발(發) 규제

정권 말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

	기존 정책	여당 움직임
재건축	공공 참여 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분양가 인하 전제로 민간 재건축 활성화 가능. 용적률·층고 규제도 완화
공시가격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연간 인상을 10%로 제한
대출 규제	고가 주택엔 대출 한도 축소,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엔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년·실수요자 전제로 DTI, LTV 규제 완화. 정부도 공감대

완화론을 경계했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을 제한 공약에 대해 “별도 캡(상한)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오르는 집이나 20% 오르는 집이나 다음 해 공시가격 상승 폭은 똑같이 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온 시민 사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 공시가격이 과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세와 간격이 너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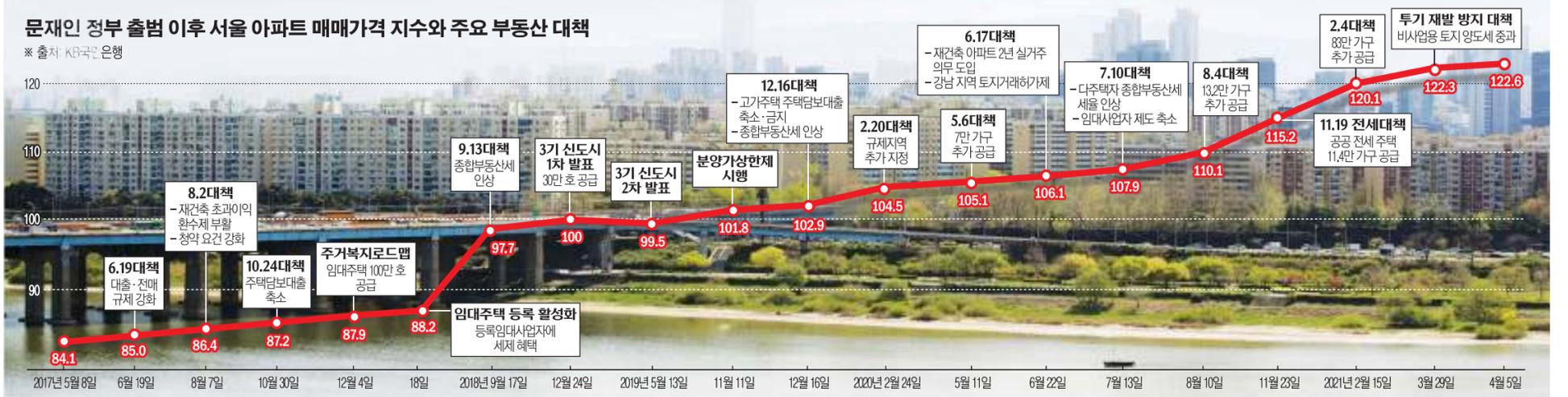
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원칙론만 지킬 수도 없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공시가격 문제만 해도 국토부 내부에선 공시가격 상황에 따른 세(稅) 부담 경감 방안을 고민 중이다.

◇대출 규제 완화엔 당정 주파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당·정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무주택자나 청년

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카드 결제액·자동차 할부금 등 부채성 지출을 포함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조정하되 청년층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과 DTI를 완화하는 방안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DTI·LTV가 완화되면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였던 주택 금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유통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 구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라며 “서민·실수요자에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시그널은 줄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盧·文 부동산 정책 닮은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달린 꼬리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데칼코마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참여정부 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재현하기만 해도 막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책 사령탑부터 그랬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정책실장을 지내며 ‘투기와 의 전쟁’을 지휘한다.

규제 후 공급 ‘데칼코마니’ 막판 연착륙 재현할까

정권 초기 정책 여건도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썼던 부동산 부양책이 참여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동력이 됐다. ‘빛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금융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과 사투를 벌여왔던 요인이 됐다.

이 같은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15년 전 참여정부와 유사하면서도 더 강한 정책으로 맞섰다. 다주택자 등에게 주택 보유·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였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 직후부터 정책 계승 움직임

이익 환수 등 공급 규제도 판박이 남은 임기 내 실책 만회할지 관심 6%까지 높아졌다. 참여정부 시절(3%)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금융 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규제도 판박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에서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다.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서울아파트값은 57%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왜곡된 시장을 규제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여겼다”며 “하지만 투자와 투기, 실수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실책을 범했다”고 말했다. 다만 2006년 18.7%에 이르던 서울 아

파트값 상승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7%로 하락한다. 집값 급등 피로감이 시장에 쌓인 데다 2006년 말부터 정부가 2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용적률 규제 완화, 공공자주주택(주택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둔 주택) 도입 등 주택 공급 정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부터 공공 참여를 전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그간 실책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 이 연구원은 “정권 초반 ‘규제’, 후반 ‘공급’이라는 정책 패턴을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세훈, 부동산 정책에 태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펼친 집값 안정 방안과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안 대부분이 서울시장 권한 밖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 시장의 발언만으로도 집값 급등 등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

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자체장 권한 밖의 일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개발과 관련해 그린벨트 보호를 이유로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 주택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역시 시장 권한 밖이다. 서울 내 재건

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가운데 102석(약 93%)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오르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집값 급등 등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11일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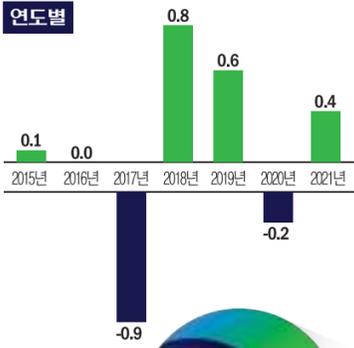
뭇, 시장 불확실성 증폭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물론 강북지역 내 주요 아파트 보유자까지 중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고 서울 전역에서 시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안을 담은 8·4 대책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오 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제동 행보는 정치적 발언 수준에 그쳐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ESG펀드 석 달 새 6700억 '착한 투자'에 돈 몰린다

MSCI 'ESG 리더스 지수' 초과 성과
(단위: %P, MSCI 세계 지수 대비)



※ 출처: 신한금융, 블룸버그

주식형수익률 75%, 해외펀드 압도
“기업 윤리와 수익률 별개 통념 깨”
지난해 전 세계 4경5765조 규모
국민연금도 자산 절반 투자 계획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또한 ESG로 대변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사회적 가치도 기업이 같이 반영해야 하며 이 문제를 기업 내부화하고 어떻게 배분시킬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학개미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구를 지키는 착한투자에 나섰다.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투자 유치에 나서기 위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ESG가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 자본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ESG펀드에 6701억원가량의 뭉치돈이 유입됐다. 연초 후 유입된 돈이 6423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다는 방증이다.

주식형 ESG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74.73%다. 국내 주식형 펀드(81.18%)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외 주식형펀드(50.52%)를 압도한다. ESG 투자 옹호론자들은 “기업의 윤리성과 투자 수익률이 별개라는 통념이 깨졌다”고 환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3000억달러(1경5029조원)에서 2020년 40조5000억달러(4경5765조원)로 8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김동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양호한 ESG 투

자 성과, 기존 상품의 ESG 리브랜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재무정보 외에도 ESG 등의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ESG 위원회 설립, ESG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이자 소비자 및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투자 규모는 2012년 49억달러에서 2019년 255억달러로 5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ESG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 확대 추세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투자한 ESG 관련 주식·채권 규모는 54억5000만달러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은 발빠

르게 ESG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부터 화석연료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배출 비중을 25% 감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장보행 투자연구소장은 “20년간 기후 변화 관련 산업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ESG 투자 전략이 수익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약 20개국이다. 유럽은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한국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러한 공시 의무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유레임 기자 wiseforest@

E만 보이는 함량 미달 ESG

시멘트업계, 女 임원 한 명도 없다

‘친환경’에만 초점 ‘사회·지배구조’ 개선 미흡

전체 산업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시멘트업계도 이 흐름에 따라 ESG 경영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친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업계 전체에 여성 임원이 전무한 만큼, S(사회)와 G(지배구조) 관련 경영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시멘트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7곳의 여성 임원 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 등기·미등기 임원은 총 134명(중복 포함)이다. 그러나 이 중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업별로 보면 삼표시멘트가 24명으로 임원 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쌍용씨앤에이(C&E) 23명, 한일현대시멘트 21명, 한일시멘트 20명, 성신양회 20명, 아세아시멘트 18명, 고려시멘트 8명 순이다.

여성 임원 수는 ESG 중에서도 G(지배구조)와 크게 연관된다.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지표에 이사회 여성 비율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여성 임원을 기용해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

지배구조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여성 임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자산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1인 이상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멘트 업계에선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없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다. 여성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발탁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멘트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 대비 평균 4.43%에 불과했다. 7개 기업의 남

시멘트업계 여성 임원 및 여성 직원 현황 (단위: 명, 2020년 말 기준)

회사명	등기·미등기 임원 수	여성 임원 수	여성 직원 비율
삼표시멘트	24	0	5.02%
쌍용C&E	23	0	4.05%
성신양회	20	0	5.51%
한일시멘트	20	0	4.60%
아세아시멘트	18	0	4.41%
한일현대시멘트	21	0	3.12%
고려시멘트	8	0	4.26%
총합·평균	134	0	4.43%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성 직원 수를 총합하면 3671명이었던 데 반해, 여성 직원은 전체 기업을 다 더해도 172명에 그쳤다.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성신양회다. 여성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명으로, 전체 직원(596명)의 5.51%를 차지했다.

다른 기업도 비슷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32명으로 5.02%로 집계됐다. 이어한일시멘트(4.60%), 아세아시멘트(4.41%), 고려시멘트(4.26%), 쌍용C&E(4.05%), 한일현대시멘트(3.12%) 순이다.

시멘트업계가 ESG 경영을 이제 막 도입한 만큼,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설비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차차 지배구조 관련 변화도 끌어낼 것 이란 분석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ESG 경영의 경우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변화를 최대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업종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 규모를 반영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타 업종에 비해 여성인력 풀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점진적으로 여성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 080-023-5454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재계 10곳 총수 바뀐다 쿠팡 연내 대기업 편입

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순위 30일 발표

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 결론
LS 구자열·대림 이해옥으로 교체
코오롱 이규호 부사장 변경 여부 관심
PEF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제외

대림그룹 동일인은 이준용 명예회장이지만 대림(옛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는 아들인 이해옥 회장이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동일인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서 그의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이용열 전 회장이 퇴진한 가운데 그의 장남인 이규호 부사장이 총수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삼성·롯데처럼 질병으로 기업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하지 못할 때에만 총수를 변경하는 등 보수적 태도를 보여 왔다. 대림과 효성 회장이 각각 2019년, 2017년 바뀌었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들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 순위도 함께 발표한다. 재계 순위는 삼성, 현대차, SK, LG 순이다. 최근 SK가 활발하게 반도체 분야 인수·합병(M&A)에 나서 2위인 현대차와 순위가 뒤바뀌지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 자산총액은 234조7000억 원, SK는 225조5000억 원이다.

쿠팡은 자산총합이 5조 원을 넘어서 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편입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운영하는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위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20주 연속 상승...멈출 줄 모르는 휘발유 가격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으나 기름값은 크게 둔화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5~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1원 오른 1당 1535.0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오늘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 금지

내달 2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추가 연장...부산 등 2단계로 격상
노래방 방역조치 단속·처벌 강화... 상황 악화면 영업시간 제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북 전주시·완주군(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거제시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가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전남·전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2단계 지역에선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수도권 1만5000개소, 비수도권 2만4000개소의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문을 닫게 된다. 이는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경남권에선 1월 이후 유흥시설 50개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를 '영업시간 제한(22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기존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대신 단속·처벌이 강화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接客원을 통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래방 내接客원 고용·알선과 주류 판매는 모두 불법 영업으로, 현행 법에도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이 밖에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매장영업),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해서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된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강화(밤 9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국내발생 594명)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 물량이 줄어드는 휴일효과에도 불구하고 5일째 600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0명 중 9명 “코로나로 취업 어려워”

우울감에 빠진 청년들

여성·전문대생이 더 심각
경사노위 “지원 정책 시급”

험 등 구직준비 기회 감소(70.8%)가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우울감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CES-D 우울감 점수가 23.2점으로 측정됐다. CES-D는 6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이면 경증의 우울증상, 21점 이상이면 중증도의 우울증상, 25점 이상이면 중증의 우울증상(전문가 상담 필요)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여성(23.6점), 20대 후반(24.3점), 구직기간 1년 이상(25.9점), 2·3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25점) 등에서 우울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원인인 스트레스 요인(복수응답)은 구직이 84.6%로 가장 많았다. 생계 우려도 68.8%로 높게 나타났다.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정부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크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빈약하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 금융안정망 마련, 마음건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청년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우울감 정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사회적 대화 브리프(Brief) 2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12월 14일까지 만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5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 34.7%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이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7.0%였다. 전체 응답자 중 91%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 소득 기회 감소’가 84.7%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채용 감축(76.5%)’,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시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개선...4차 재유행이 변수

경기전망지수 19P오른 103

소매유통업계의 체감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4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에 도출한 결과인 만큼, 실제 전망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매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103’으로 전 분기보다 19포인트

(P) 올랐다고 밝혔다.

RBSI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95), 편의점(97), 슈퍼마켓(93)이 각각 52포인트, 36포인트, 28포인트 오르며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주요 경쟁상대를 묻는 말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온라인소매를 주목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온라인소매를 경쟁상대로 지목하는 비중이 타 업체보다 높았다.

기업 5곳 중 3곳 “투자계획 없거나 축소”

한경연 조사...투자확대 21% 그쳐

올해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조사에는 10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58.0%는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투자를 축소한다고 답했다.

항목별로 보면 ‘투자계획 미정’ 28.0%, ‘투자계획 없음’ 20.0%,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한경연은 지난해에도 500대 기업 중 절반이 투자를 줄였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이뤄졌다. 코로나19 4차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에 나온 결과인 만큼, 실제 전망과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변화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하고 상품·서비스 혁신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다만, 전체 투자금액은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에 따라 증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4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요 프로젝트 종료’ 21.5%, ‘경영악화로 인한 투자 여력 부족’ 15.2%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규제 입법이나 투자 인센티브 축소 등 제도적 이유로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은 14.0%였다.

김대영 기자 kdy@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 기회는 연리지홈



적은 돈으로 빠르게 내 집 장만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처음 살 땐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사고
20~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없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HOME

-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2028년까지 서울에 1만 7천호 공급
-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의 80%내외 X 지분율 20~40%로 저렴 분양
- 4년마다 형편에 맞게
4년마다 15~20%씩 형편에 맞게 지분 추가 획득
- 처분 자유, 언제든지 매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분전체 제 3자에게 매각가능
- 장기 보유, 자산형성 지원
처분시점의 지분비율대로 금액분할

SH의 [생애주기별] 신개념 주택정책 브랜드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청년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체계 구축

2030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신호 SMART HOUSING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움 청신호
2030세대 청년창업가	ablub 에어블럽	청년 창업지원 도전속 시즌2 에이블럽
3040세대 무주택세대	연리지 HOME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5060세대 노후세대	누리재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연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SH가 연리지의 가지처럼 함께하는 정책임을 표현



與 ‘쇄신론 확산’ 최고위원도 전대서 선출

“당 위기...폭넓게 의견 수렴해야” 내홍 겪던 비대위, 3일 만에 선회 초선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높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일일할 당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양분됐으나 최고위원 역시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동반 선출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당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둘러싼 내홍을 줄이고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수정의결했다”며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당무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민주당 비대위는 재보선 패배 다음 날인 8일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을 당규에 따라 중앙위에서 뽑기로 했으나 3일 만에 번복한 것이다. 지도부 총사퇴로 꺾이던 최고위원 선출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2일까지 소화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중앙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전국 시도지사, 시·도당위원장 등 800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의 위기 상황인만

큼 당원들의 뜻이 더 폭넓게 수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면서 비대위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당권 주자 3인방 가운데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11일 지도부 총사퇴로 집단 공석이 된 최고위원들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주류인 박주민,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지지했다. 초선인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20·30 초선 의원을 겨냥해 ‘초선오적’이라고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20·3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들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조소와 비아냥에 아파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들은 “친문과 비문을 나눠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며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책임론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에서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다만, 강성 당원이라 하는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 탓, 세력 탓 하는 것보다 반성과 쇄신방안 마련”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정쇄신 절박한 文 정책성과·개각 고삐

오늘 방역·15일 경제 직접 점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방역·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성과 창출에 고삐를 죄고, 한편으로는 개각을 포함한 인사교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해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략산업 대응전략을 살핀다.

여권이 쇄신 방안을 두고 양분하는 가운데, 당·정·청의 긴밀한 정책 조율작업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마땅치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할 카드로 개각 등 인적 쇄신을 꺼내 들 전망이다. 먼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사실상 공식화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이란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르면 15일 늦어도 다음 주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전 장관, 이태복 전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제라인 재정비 차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등의 발탁 가능성이 언급된다.

아울러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도 일부 비서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전셋값 인상으로 논란이 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경제수석·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라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비대위 참석 도종환(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정책 협의 오세훈(맨 오른쪽) 서울시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에선 서로 화합의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앞두고 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재촉하고 있지만, 정작 합당 가능성을 내비쳤던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당에서 입지를 굳힐지, 외부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다.

다음 주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당에 합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민심부터 살

“국힘의 승리” vs “안철수 덕분”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피겠다”며 합당에 관한 판단은 다소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 어떤 시기, 절차로 합당할 것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합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안 대표는 8일 “중요한 건 지난 100일간의 평가와 전국 당원들을 만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며 최대한 신중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은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양당 모두 통합의 시기나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선에서 야권 압승에 대한 입장

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제1야당 간판으로 나섰기에 승리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오히려 안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당선에 두고 ‘야권 승리’라 표현한 안 대표에게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北, SLBM 3기 탑재 가능 잠수함 만들었다

15일 전후 진수식...SLBM 시험 발사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11일 북한이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마치고 곧 진수식에 들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전후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산행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에 공개한 3000t급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진수식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대내외에 알릴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이번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에는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한 소식통은 “한미는 북한 신포조선소의 동향을 비롯해 다양한 신호정보(시그니트) 등을 종합해 건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은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을 개조해 건조한 3000t급 추정 잠수

함은 전폭 7m, 전장 80m 안팎으로 SLBM 3발을 탑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3000t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잠수함은 신포조선소에 있는 길이 190여m, 폭 36m의 대형 건물 안에서 건조됐다. 앞서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건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북한이 태양절 앞두고 잠수함 진수식을 하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래 태양절을 전후해



2019년 7월 조선중앙TV가 공개했던 북한의 3000t급 잠수함.

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한 전력에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로 설명할 북한군의 활동

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0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신포조선소에 있는 SLBM 시험용 바지선에 서 미사일 발사관이 사라졌으며 SLBM 시험용 선박의 개보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시험용 선박에 더 큰 SLBM 탑재가 가능한 새 미사일 발사관 교체 작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북한은 건조 작업을 마친 3000t급 외에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중대형 잠수함 1척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잠수함에는 신형 SLBM ‘북극성-4스(시위트)’와 ‘북극성-5스’가 탑재될 전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마윈 왕국’ 두려운 中정부, 알리바바에 ‘3兆 철퇴’

시진핑, IT기업 견제 강화 의도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대 벌금 상하이방과의 권력투쟁 성격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시진핑 정권이 자국 IT 대기업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집권을 추진 중인 시 주석이 급성장하는 IT 기업 통제에 나섰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전 기록인 2015년 쉐넌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리바바가 2019년 중국에서 올린 매출의 4%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텐센트와 바이두 등 다른 IT 기업들도 반독점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을 받았지만, 최대 수십~수백만 위안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알리바바에 부과된 벌금은 이례적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거대한 고객망을 갖고 있다. 출점 기업들은 이 플랫폼에서 나가면 상품 가격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 사업에서 이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출점 기업

중국의 알리바바 제재 현황

2020년

- 10월 마윈 창업자, 강연에서 당국 금융 행정 비판
- 11월 당국, 감독 방침 변경 후 엔트그룹 상장 연기
- 12월 당국,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 본사 압수수색

2021년

- 3월 - 리커창 총리, 전인대회 반독점 조사 및 핀테크 감독 강화 주문
- 후샤오밍 엔트그룹 CEO, 사의 표명
- 4월 당국,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에 3조 원 벌금 처분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들이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하면 알리바바가 각종 벌칙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만 유독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것은 그만큼 당국이 알리바바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닛케이가 짚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엔트그룹의 상장 연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IT 기업을 표방하는 엔트그룹의 혁신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 지주사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결국 엔트는 이를 받아들여 금융지주사 전환을 결정했고 시중 은행들과 비슷한 규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마

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엔트그룹 임원진을 소환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알리바바가 보유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자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주요 앱스토어에서 당사 웹 브라우저를 삭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닛케이가 “중국 지도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도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중시했다”며 “이런 질서를 뒤흔드는 알리바바의 팽창을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에는 권력 투쟁의 측면도 엿보인다. 그동안 알리바바의 성장 배후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나아가 장 전 주석의 손자가 엔트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엔트그룹 상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리스트에 이미 은퇴한 지도자(장쩌민)의 친족과 관계자 이름이 줄줄이 있는 것을 보고 시 주석 측근들이 격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 5년에 한번 돌아오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를 2기·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고, 내년 당 대회 이후 3기 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y0@

“처우보다 생계가 우선” 아마존 노조설립 무산

노조 통한 복지개선 회의론 우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미국 내 첫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직원들의 투표로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창고 직원들은 전날 집계 끝난 소매·도매·백화점노동조합(RWDSU) 가입 여부를 묻는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 738표 반대 1798표로 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쪽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RWDSU에 가입하는 데 찬성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6% 미만이었다.

아마존 근로자들이 ‘무노조’를 선택한 배경에는 일자리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고 WSJ는 분석했다. 노조 결성 후 해당 시설 폐쇄 등으로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부 근로자는 아마존이 지난해 인근 지역에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던 다른 두 곳 시설에 대한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0만 명을 추가 고용했다.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이 현저하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이번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연방정부보다 두 배 높게 주고 의료보험과 퇴직 혜택도 좋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런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조가 세워지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



지난달 30일 미국 앨라배마주 베서머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서 노조 결성 찬반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베서머/AP연합뉴스

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직원 중 일부는 제3자의 개입(노조) 없이도 회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월급 중 일정 부분이 노조 회비로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노조 설립 반대 투표를했다고 밝힌 한 직원은 “아마존은 완벽하지 않으며, 결함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노조가 없더라도 그것(결함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왜 노조에 돈을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아마존의 메시지를 더 크게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노동경제학자인 이완 바란케이는 “처음(노조 결성)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을 때는 조합의 노력이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사의 메시지(실직 가능성)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中 ‘핑퐁외교 50주년’ 친선경기 10일 중국 상하이 국제탁구연맹박물관에서 미국과 중국 선수들이 핑퐁외교 50주년을 맞아 친선 경기를 하고 있다. 1971년 바로 이날 미국 탁구팀은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팀과 친선경기를 했고, 이듬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핑퐁외교라는 수식어도 탄생했다.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기념 연설에서 “양국은 상호존중과 구동존이(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동이익을 찾다)라는 핑퐁외교의 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신화연합뉴스

뉴욕증시 노크한 ‘디디추싱’ 美·中 금융협력 ‘디딤돌’ 되나

상장맨 기업가치 최대 112조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이 미국증시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디디추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밀리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증시 이중상장도 계속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추싱의 NYSE 상장 성공 여부는 금융 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1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전망했다. 양국 정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월가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강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디추싱과 같은 중국 대외의 상장 성공 여부가 조바이트 미국 행정부의 금융 분야 대중 정책 가능자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디디추싱이 미국증시 안착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금융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NYSE는 올해 들어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국유 통신 대기업 3사 등의 상장폐지

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타트업 34개사가 미국에서 상장했으며, 올해 1~3월에도 20개 회사가 상장했다. 이에 더해 20여 개 회사가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금융기관 임원은 “미국 투자자들이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의 스타트업에 많이 출자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 기업들도 미국 상장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디추싱은 대외 중의 대어로 꼽힌다. 기업가치는 약 700억~1000억 달러(약 78조4700억 원~112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간사로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용했으며, 미국 금융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2012년 설립된 디디추싱은 중국 배차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호주·남미·러시아 등에서도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전체 이용자 수는 5억5000만 명을 넘어섰다.

변효선 기자 hsbun@

글로벌 위험자산 부풀리는 ‘그림자금융’

1분기 투기등급 채권 발행 234조로 사상 최대

그림자금융이 글로벌 고위험 자산 버블 팽창 주범으로 지목됐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고위험 자산이 팽창하는 이면에는 기존 금융규제 틀 밖에 있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있다고 1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이 분석했다.

미국 유람선 대기업인 로얄캐리비안크루즈가 3월 29일 발행한 회사채 금리 수준에 시장이 놀랐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월 이 회사 신용등급을 ‘B’로 강등했지만, 회사채 금리가 5.5%로 지난해 5월(약 11.7%)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자금융을 통한 자금 수요가 넘쳐나면서 이런 고위험 회사채 금리가 하락했다고 닛케이가 풀이했다.

이처럼 투자적격등급(BBB)에 못 미치는 ‘투기등급’ 채권 발행이 높은 수요에 힘

입어 급증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전 세계의 투기등급 채권 발행액은 1분기에 2083억 달러(약 234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여러 기업 대출채권을 묶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이 급증하는 것도 우려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화점 중 하나였던 CLO는 지난해 총 6623억 달러로 5년 만에 50% 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2016년부터의 누계 자금 조달액이 올해 3월 2179억 달러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현재하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이달 2조 달러를 넘어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금융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림자금융은 규제 허점을 이용해 팽창했으며 이는 상기 고위험 자산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닛케이가 풀이했다. 일례로 최근 월가에 파문을 일으킨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로 주목을 받게 된 패밀리오피스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꼽히는데 그 자산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조9000억 달러에 달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G2 패권 경쟁에 무너진 '글로벌 밸류체인'

국경 초월한 공급망 '상호의존 원칙' 국제질서 안정에 이바지 中 제조업 허브 부상에 美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강경 대응' "글로벌 공급망, G2 중심의 2개 권역으로 갈려 대립할 수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해온 이론인 '상호의존 원칙'을 돌연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과거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원칙은 이제 양국 간 공급망 대결로 변질돼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직후 중국에 줄곧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펼친 대중 정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더 나아가 거액의 예산을 공급망 재검토에 편성하는 등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중국도 보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지켜왔던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의존 원칙에도 금이 가고 있다.

상호의존 원칙은 과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책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전

쟁을 줄이는 3가지 요인 중 하나"로 등장했다. 당시 칸트는 국가 간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를 뛰어넘는 무역 조약이 늘어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확장된 이 원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아낸다. 특히 1970년대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미·소 냉전의 해빙, 석유 파동 등으로 글로벌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호의존 원칙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경제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으며 미국 정치 평론가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5년 집필한 책 '세계는 평평하다'를 통해 상호의존 원칙에 대한 낙관주의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이 원칙이 세계 평화

미·중 공급망 대립 일지

미국

- 2020. 2 미국 검찰, 화웨이에 영업비밀 절취·대북제재 위반 혐의 기소
- 5 미국 상무부, 수출 규정 개정... 화웨이 납품 제한 대상 확대
- 7 미 FCC, 화웨이와 ZTE 국가안보위협 대상 지정
- 12 미 국방부, SMIC 등 중국 기업 4곳 블랙리스트 추가

중국

- 2020. 11 화웨이,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 신설
- 12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시행... 희토류 무기화 시사
- 2021. 3 선전시, SMIC에 2.6조 원 투자 결정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가 되고, 국력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까지 상당 수준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다.

이 같은 우려는 조지타운대 에이브러햄 뉴먼 교수가 2019년 발간한 책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뉴먼 교수는 상호의존성이 전 세계 널리 퍼져 있지만, 그렇게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 허브는 모든 나라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지정학적

권력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에는 "미국이 그동안 상호의존적인 공급망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어왔다"며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기 시작한 중국이 이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주요 품목 공급망 확장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에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연설에선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우리가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경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대유행)도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박차를 가했다. 과거 전략물자라 하면 전시에 사용되는 군용품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의약품, 식품, 희토류, 배터리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됐다.

미·중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2개의 권역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여름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와 밀접한 외교·전략 전문가 15명이 집필한 보고서는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향후 전 세계 공급망이 '2개의 테크놀로지 권역'으로 나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그들의 전략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좌우할 '3R'

3개의 R(3R)가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최근 향후 세계 공급망에서 △ 리쇼어링(본국 회귀·Re-shoring) △ 지역화(Regionalization) △ 울타리 구축(Ring fencing) 등 세 가지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 뱅크

코로나 여파에 기업 본국 회귀 판매지 인근, 물류허브 재부상 특정 물품·공급망 구분 현상도

오브아메리카(BOA)는 "리쇼어링 경향은 단기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에 걸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화도 향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는 "세계 전역에 퍼져 있던 공급망의 분리·확산이 진행돼 각 지역의 물류 허브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 지역 인근에서 물자를 조달·생산·가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단일 조달처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 연구에 강한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 하인리히재단의 스티븐 울슨 연구원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무역 흐름과 정책을 변경하

글로벌 공급망 좌우할 3R

리쇼어링(본국 회귀·Re-shoring)

최근 나타나는 U턴 기업들 추세가 구조·장기화

지역화(Regionalization)

공급망 분리·확산 진행... 각지 물류 허브 재부상

울타리 구축(Ring fencing)

특정 물품·공급망 구분... '사내 디커플링' 가능성도

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기존 아시아 거래처 대신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추세인 울타리 구축(Ring fencing)은 특정 물품이나 공급망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미·중 양쪽과 거래하는 기업이 있다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피하고자 중국과 거래하는 상품과 미국과 거래하는 상품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 서로 공급망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용 제품은 중국제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서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사내 디커플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처다.

다국적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지정학적 요인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재미 공감 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인터넷銀 만든다는 금융지주 ‘제살깎기’ 우려

업계 “은행 계열사와 중복 투자” 경쟁 심화로 인력 감축 불 보듯 금융지주, 비대면 수요 커 희망

4대 금융지주사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참여를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복투자를 통한 제살깎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 방침이 확인될 시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이들 금융지주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달 내 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은행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세울 시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



회사 형태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인터넷은행 설립 주체로 나선다면 은행법과 시행령상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데는 지분을 50% 이상만 확보한다면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설립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동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내 은행에서 인터넷은행을 확대하고 있

지만,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계열사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같은 계열의 은행은 점포 축소, 인력 축소 등 효율성 제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는 계열사간 동일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사업을 몰아주는 정리 작업에 들어가지만,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설 시 반대의 경우가 돼버리고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은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ICT 금융 참여를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의 인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금

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까지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업체들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을 반기는 데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18개 국내은행·우체국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금이체·대출신청 금액은 1일 평균 58조65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특히 대출 서비스는 난해 인터넷뱅킹으로 신청된 금액이 하루 평균 4842억 원으로 151.5%나 급증했다.

금융지주로서는 덩치가 큰 기존 시중은행만으로 급증하는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보다 기민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확보해 새로운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금융지주사 수요 조사 결과와 7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대략적 추가 인허가 수와 일정, 설립 조건 등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우리금융, 빅데이터로 기업 분석

우리금융지주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앤투이 개발한 ‘허블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70만 개에 육박하는 국내기업의 개별정보를 표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수집,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은 기존 재무자료 중심의 기업조회 서비스와 달리 기업의 사업, 기술, 조직, 인증, 투자 등 재무·비재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기업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신규 투자처 발굴에도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카드, 마케팅 플랫폼 고도화

삼성카드는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인 ‘링크(LINK) 파트너’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휴사는 삼성카드의 고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마케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링크 파트너’는 2014년 삼성카드가 업계 최초로 시작한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인 링크(LINK)를 더욱 고도화한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이다.

기존 링크는 제휴사가 마케팅을 요청하면 삼성카드가 빅데이터를 통해 해당 제휴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회원을 표적화해 마케팅을 대신 수행했다면, 링크 파트너는 제휴사가 플랫폼에 접속해 고객 타겟팅,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등 마케팅 전 과정을 제휴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링크 파트너는 크게 △LINK offer(빅데이터 마케팅) △LINK ad(광고서비스) △LINK insight(리서치 서비스) △LINK report(분석정보 제공) △LINK board(트렌드 리포트)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내 차 찍기만 해도 담보대출 실사 끝

‘메타버스’ 미래금융 핵심 부상 고객상담·실사에 AR·VR 도입

타버스 기술은 ‘온·오프라인 연결’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금융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메타버스는 AR을 통해 현실을 보강하거나 VR을 활용해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이 개인 컴퓨터(PC)와 인터넷의 휴대성 한계를 넘어 ‘손안의 디지털 금융’을 촉진했듯,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은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기술적 장

점으로 스마트폰의 한계인 온·오프라인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금융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 주장이다.

우선 메타버스 시대에 금융업의 업무공간은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상담, 실사 등 현재 오프라인 방식이 선호되는 업무 영역에서도 AR·VR 기술이 도입돼 오프라인 업무와 온라인 업무의 연계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을 실사하는 경우 현재는 실사와 데이터 검토 업무가 분리돼 있으나, AR 기술로 자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현장 실사와 데이터 검토를 연

계할 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가상 경제가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권 역시 메타버스 기술을 업무영역에서 활용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버세대 상담과 AR·VR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복합 점포 구성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우선 오프라인 업무들 가운데 ‘업무 소요 시간’ ‘중요성’ ‘기술 도입 용이성’을 기준으로 파일럿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가속화에 따라 실버세대 금융 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포 내 AR·VR을 활용한 상담 기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미국의 캐피탈 원은 증강현실(AR) 기반의 자동차대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 앱으로 실물 자동차를 찍으면 해당 차량에 필요한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수행하던 대출 실사 업무에 AR 기술을 연계하는 것으로 고객 정보에 따른 예상 대출액 파악과 실제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가상 세계의 종합을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금융권 역시 AR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새로운 업무 방식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 경제를 대비해 온·오프라인의 업무의 연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메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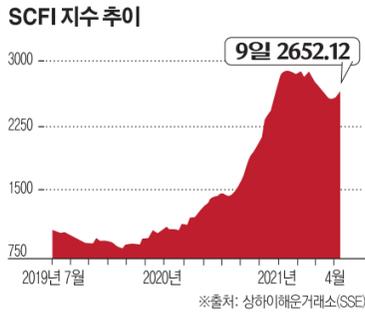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코로나 여파로 치솟은 화물 운임 해운·항공 물류 '부활 기지개'

HMM, 1분기 최대 실적 가시화
SM상선, 작년 영업이익 초과 달성
대한항공, 수에즈 운하 호재 작용
지난해 이어 흑자전환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치솟은 화물 운임 덕분에 물류업계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해운업계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한편, 항공업계 역시 화물을 앞세워 수익 방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5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HMM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다면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최대치다.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9808억 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선다. 이러한 실적이 이어지면 HMM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SM그룹의 해운 부문 계열사인 SM상선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206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1분기 만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셈이다. SM상선은 올해 1~2월 해운 부문 영업이익 964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의 72%를 달성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1분기가 해운업계의 전통적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해운업계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와 운임 상승의 역할이 컸다. 컨테이너선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대비 3배로 치솟은 등 2월 중순까지 초강세 국면을 유지해왔다.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유럽 운임도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재차 반등했다. 올해 장기운송계약(SC)도 지난해와 달리 높은 운임을 기록 중이다. 항공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화물 운송 호조로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이익은 929억 원 수준. 작년 1분기 영업손실 828억 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화물 운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대한항공의 수익 방어에 힘을 보탤다. 항공화물 운임지수인 TAC 지수의 홍콩~북미 노선 항공화물 운임은 지난해 5.4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에는 4.03달러였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공항 국제선 화물 수송량은 28만7989톤(t)으로 전년 대비 21.5% 늘었다. 미주와 일본, 중국, 유럽 전 노선에서 화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한항공의 운송량은 전년 대비 27.1%, 아시아나항공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에즈 운하 이슈로 긴급 수송이 가능한 항공화물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항공화물 운임과 운송량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윌리 월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항공화물 수요는 2월 기준 2019년 같은 달보다 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라며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요로 인해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화물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2분기 제조업 '비교적 맑음'

산업연 경기실사지수

백신 효과·내수·수출 회복세
조선·섬유 등 일부업종 제외
시황·매출 전망치 소폭 상승

올해 2분기에는 억눌렸던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산업연구원이 전국 제조업체 10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치(BSI)는 각각 103, 107로 전 분기보다 4p, 5p 늘었다. 두 지수가 100을 넘는 것은 통계를 개편한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음을 의미한다. 100을 넘은 것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업종별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전체 13개 업종 중 조선(86)과 섬유

(99), 이차전지(9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넘겼다. 특히 무선통신기기(115)와 화학(113), 바이오·헬스(111), 정유(110), 디스플레이(109) 등에서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08), 일반 기계(108), 철강(108), 가전(107), 반도체(105) 등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내수(107)와 수출(109) 전망치는 3분기 연속 상승했다. 설비투자(103)와 고용(104)도 100을 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110)과 중소기업(106) 모두 100을 넘었다. 다만 1분기 매출 현황 BSI는 3분기 만에 하락해 91에 머물렀다. 전 분기에는 96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102로 소폭 하락했으나 100을 웃돌았고, 중소기업은 84를 기록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현황을 보면 여전히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2분기에는 코로나19 백신 효과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내수와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현대로보틱스 '진격의 로봇 드림'

카페·호텔 등에 로봇 공급 성과
정기선 부회장, 직접 현안 챙겨
제품군 확대 등 매출 목표 3600억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가 올해 일찌감치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페, 호텔에 자사 로봇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공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센터를 열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로봇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현대로보틱스는 성장을 위해 로봇 신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인다. <연초부터 성과내는 현대로보틱스> 11일 현대로보틱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목표 매출액(연결기준)은 3600억 원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로 분리됐다. 작년 5~12월 현대로보틱스의 매출액은 1953억 원이다. 현대로보틱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달 초에는 알라바바파트너스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 소형고속 핸들링 로봇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KT와 공동개발한 인공지능(AI) 호텔 로봇을 대구 메리어트 호텔 & 레지던스에 공급했다. AI 호텔 로봇은 객실 투숙객이 편의용품을 요청하면 배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용 로봇 등 다른 제품군도 고객사로부터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서비스도 강화했다. 올해 2월부터는 로봇물류시스템 데모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데모센터는 로봇이 물건을 쌓는 모습, 날개 주문에도 신속히 필요한 물건을 찾아 출고하는 모습 등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기술을 고객에게 보여준다. <현대로보틱스, 제품군 확대·협업 강화



대구 메리어트 호텔 & 레지던스에 공급된 현대로보틱스의 AI 호텔 로봇.

= 현대로보틱스의 성장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실제 스마트팩토리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무인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로봇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32% 성장을 기록해 2025년 1772억 달러(약 19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성장세 때문에 정 부사장은 현대로보틱스 현안을 챙기고 있다. 지난해 현대로보틱스와 KT의 투자 계약서 체결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다. 정 부사장은 체결식에서 "앞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디지털화라는 시장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로보틱스는 그룹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품군을 대폭 늘린다. 올해 6월까지 △무거운 짐을 운반해주는 러기지 로봇 △무인매장에 적합한 안내·감시 로봇 △청소 장비를 대체하는 청소 로봇 △비대면으로 방역이 가능한 방역 로봇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른 기업과의 협업은 꾸준히 이어간다. KT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AI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 마키나락스와 로봇 신기술을 개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로봇, AI, 수소 등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다"라며 "로봇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체질 개선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국내 매출 100대 기업 10곳 중 9곳 재택근무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가 현재 재택근무(사무직 기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재택근무 시행 비중 91.5%는 지난해 9월 조사(88.4%)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많은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8.5%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기업' 2.4%,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없는 기업' 6.1%로 조사됐다. 재택근무를 중단한 기업은 그 사유로 '업무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재택근무는 '교대조 편성 등을 통한 순환방식(출근차비율관리 포함)'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재택근무조를 편성해 규칙적인 교대·순환을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는 출근차 비율을 정해 놓고 부서·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운영방식이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생산성은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40.9%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시 근로자 업무생산성을 정상출근 대비 '80~89%'로 응답한 비중이 39.4%, '70~79%'는 10.6%, '70% 미만'이 9.1%로 각각 나타났다. 체감 업무생산성 전체 평균은 83.4%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가 11일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모델들이 LG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사진 왼쪽)와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 '오브제컬렉션' 공기청정기 첫선

LG전자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라인업을 확대하며 공간 가전 리더십을 선도한다. LG전자는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를 11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LG 공기청정기 가운데 첫 오브제컬렉션 모델이다. 차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네이처 그린 색상을 적용해 기존 오브제컬렉션 제품들은 물론 집안 전체의 인테리어 톤과도 잘 어우러진다. 대표 제품(모델명: AS351NGFA)은 지난해 출시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의 차별화된 성능을 그대로 계승했다. 청정면적은 기존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플러스 대비 100㎡(제곱미터)에서 114㎡로 넓어졌고, 위쪽과 아래쪽에 위치한 클린부스터의 청정거리도 기존 대비 각각 더 늘어났다. 고객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인공지능 센서를 신제품과 연동시킬 수 있다. 집안 공기 관리가 필요한 곳에 센서를 두고 함께 사용하면 공기청정기만 사용할 경우 대비 약 5분 더 빠르게 오염된 공기를 감지한 후

해당 공간을 청정한다. 인공지능 센서는 최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순전도 모드 변경, 필터 교체 시기 등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사용 시간과 필터에 쌓인 먼지양을 바탕으로 압력 차이를 측정해 필터교체 시기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필터수명센서 △항바이러스·항균 효과가 있는 V트루토탈케어필터 등 다양한 편의 기능과 위생 기능도 갖췄다. LG 오브제컬렉션 제품군은 워시타워, 스타일러, 휘센 타워, 청소기,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정수기,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빌트인 타입 냉장고, 김치 냉장고, 1도어 냉장·냉동·김치 컨버터블 냉장고 등에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면 모두 14종이다. LG전자는 이후에도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차별화된 성능은 물론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LG 공기청정기를 앞세워 오브제컬렉션 팬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준중형 세단>

<대형 세단>

아반떼에 밀리고 G80에 치여 '후진'하는 중형 세단

코로나禍 고급차 보복소비 증가
'생애 첫 차' 준중형차 선호 늘어

현대차·기아 중형 판매 18% 감소
쏘나타 26%↓ '국민차' 입지 흔들

준중형 세단과 대형 세단 판매가 증가하는 사이 쏘나타와 K5 등 중형 세단 판매는 18% 수준 하락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중형 세단 판매는 총 3만 4821대로 집계됐다. 4만2321대가 팔린 지난해 1분기보다 17.7% 감소했다.

연간 실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분석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중형 세단은 16만 7067대로 전년(17만1358대) 대비 2.5%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 K5, 쉐보레 말리부, 르노삼성 SM6 등이 경쟁하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쏘나타의 감소 폭이 상대적

중형차 내수 판매 추이 (단위 : 대, 1분기 기준) ※ 분류: 배기량 1.6 이상 2.0 미만



※출처: KAMA



으로 컸다. 1분기 쏘나타 판매는 1만 403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감소했다.

중형 세단 소비층이 대형 세단이나 SUV 또는 미니밴 등으로 분산하면서 대형차와 소형차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형 세단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쏘나타의 판매 부진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재고 관리를 위해 작년 말에 이어 지난달에도 5일간 문을 닫았다.

이후 아산공장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이달 12~13일도 결국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

같은 아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준대형차 그랜저가 4년 연속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굳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때 국민차로 추앙받았던 쏘나타 판매 부진과 달리 아랫급인 준중형차와 윗급인 대형차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신차효과를 톡톡히 누린 덕이다.

지난해부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신차가 쏟아지면서 대형차 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3세대로 거듭난 G80의 경우 제네

시스 전체의 판매 상승을 주도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 그랜저와 G80, K9, G90 등 준대형·대형 세단을 작년보다 3.6% 증가한 총 4만2420대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춤했던 준중형 신차 현대차 아반떼의 등장도 중형차 대기 수요를 준중형차로 옮겨냈다. 준중형 세단은 올해 1분기까지 작년보다 46.6% 증가한 2만4843대가 판매됐다.

준중형 세단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생애 첫 차'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여기에 현대차 엑센트, 기

아 프라이드 등 소형차들이 잇따라 단종하면서 이 수요의 대부분을 준중형차가 흡수했다.

이밖에 SUV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면서 '패밀리카'로서 중형 세단의 입지도 약해졌다.

특히 소형 SUV(B세그먼트)는 큰 인기에 힘입어 브랜드별로 2종씩 신차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코나와 베뉴 △기아 쉐보레 스톱닉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 XM3와 QM3(르노) △쌍용차 티볼리 에어와 티볼리 등 10차종이 경쟁 중이다. 이들은 차 크기와 가격 등에 따라 각각 B+등급과 B-등급 등으로 나뉘어 시장이 쪼개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가 시작되면서 크고 화려한 차를 좋아하는 보복 소비심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SUV 역시 현대차 팰리세이드(대형 SUV) 또는 기아 쉐보레(소형 SUV)가 인기를 누리는 등 양분화 사태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시럽웰스는 시럽웰렛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국민 생명 우선” vs “겉모습만 낡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논란

**정의당 “부식 등 이유로 대형사고”
업계 “부품 지속 교체 안전하다”**

한해 생산액만 83조 원에 달한다. 308사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만 2만1100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한 여수단지도 문제다. 129사가 입주해 이곳에는 약 2만400명이 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곳마저 1991년에 가동을 시작한, 30년 된 대산단지(11사 약 4300명 종사)다.

반면, 업계 시각은 다르다. 설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것처럼 보이는 곳이 눈에 띌 수 있지만, 공정 내 부품과 설비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물론 설비들이 최신 설비여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새것처럼 보이지만, 안전과 관계없이 설비가 녹슨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화학공장 설비들은 노후 전후기와 비슷해서 10~20년이 지나면 전후기 부품처럼 새롭게 바꾸고 계속 탈피하면서 바뀐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있는 시설안전관리법이나 다른 법을 통해 강화할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현실적 접근법이 맞을 수도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무협 “신재생에너지 전기, 산업현장 공급 늘려야”

“탄소규제, 제조업 경쟁력 좌우”

국이나 유럽보다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電源)의 탈 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제삼자 PPA)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고객센터
1599-8245

※ 보증기간 중 수리 등 관련부품에 대해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위대신은 용량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고장(보증기간 내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고장(보증기간 내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고장(보증기간 내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고장(보증기간 내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 수리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온라인몰>

LG U+ '자급제폰' 구매·개통 유상서 한 번에

**단말기 최대 12% 상시 할인
전용 특화 요금제 32% 저렴
요금요·마켓컬리 등 쿠폰도**

LG유플러스가 자사 공식 온라인몰인 유샵(U+Shop)에서 국내 최초로 자급제 단말기 개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LG유플러스는 자급제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삼성전자 공식온라

인 파트너사인 쇼마젠시와 제휴를 맺고, 유샵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급제 단말기는 대형마트,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공기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자급제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샵에서 자급제폰 구매부터 요금제 가입, 유심 개통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상 자급제폰 개통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기 최대 12% 상시 할인

(단말기 최대 7% 및 최대 5% 할인쿠폰 포함)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한 무약정 다이렉트 요금제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 시 '유상 전용 제휴팩' 등 실질적 혜택 △유심 셀프개통을 통해 편리하게 개통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샵에서는 최대 12% 할인 가격에 단말기 구매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자급제 단말은 갤럭시 S21/S21+/S21울트라(256GB), 노트20/20울트라, Z폴드2, Z폴립5G, S20 FE, A51, A31, A12 등 총 11종이다.

단말기 구매 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셀프개통' 서비스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셀프 개통은 유샵에서 유심 개통을 마치면 1~2일 후 배달된 유심을 단말기에 직접 삽입해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셀프 개통이 어려운 고객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문 상담사와 통화 뒤 개통할 수 있다.

요금제 제한도 없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무약정 자급제폰에 특화된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의 경우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할 뿐 아니라 24개월간 매월 요금요, 마켓컬리 등 제휴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최대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유상 전용 제휴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김남수 LG유플러스 디지털사업담당(상무)은 "자급제폰 개통 서비스는 MZ세대 전 팬 고객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에 O2O(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자급제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비대면 스포츠 코칭 ‘키픽’ 통해 맞춤형 운동”

인터뷰

정인기 배턴터치 대표

**홈트에 코치 붙어 체계적으로
전문 강사 1000명 모집 목표
아프리카TV와 업무협약 체결**



정인기 배턴터치 대표는 “비대면 스포츠 코칭 플랫폼 ‘키픽’을 통해 내게 맞는 운동을 어디서 누구와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배턴터치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운동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홈 트레이닝 플랫폼이 2019년부터 꾸준히 등장, 운동 희망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배턴터치의 홈 트레이닝 플랫폼 서비스 키픽(KEEPFIT)은 초점은 생애주기다. 차별점은 '코치'가 붙고 체계적 맞춤화 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고객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정인기 배턴터치 대표이사는 11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키픽은 고객 운동 및 건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시보드이자, 이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파트너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밝혔다.

창업 배경은 단순했다. 정 대표는 서울 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가운데, 대학 시절 서울대 벤처 창업 동아리에 몸담았다. 군 생활도 IT 기업에서 병역특례를 거쳤다. IT 스타트업에서 직장생활도 했다. 당시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창업 준비 중에 운동 지도를 받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IT와 홈 트레이닝의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에 집중한 시점은 2020년 8월 온라인 P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라며

“정부 과제 및 파트너사의 도움으로 ‘키픽’이라는 더 고도화된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했다”고 말했다.

최근 많은 홈 트레이닝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O2O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강사와의 긴밀한 관계구축과 맞춤형 운동 과정의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철학이다.

이에 배턴터치는 전 직원이 직접 운동하고, 또 강사와 회원의 소통 과정에 참여해 수천 명의 비대면 운동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분석하며 사례와 경험을 쌓았다. 축적된 데이터는 운동 과정의 코칭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올해는 시설 또는 강사 천 명의 전문가를 모집해 매달 30명 이상의 회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개인 교습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 지점은 1명의 회원이 반드시 작은 성공 경험을 갖는 데 집중해 강사·회원의 재참여와 만족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파트너는 아프리카TV다. 배턴터치와 아프리카TV는 최근 ‘비대면 스포츠 코칭 통합 플랫폼’을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운동 시설을 홍보할 수 있으며, 강사 관리 및 비용 등에 관한 부담은 낮아져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운동 강사도 홍보를 통해 회원 유치가 가능해지고, 각종 데이터 트래킹과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공신력 있는 표준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배달의 민족 사례를 들며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공간에서 먹는 편의와 효율이 업무에겐 매출 증대로 이어졌듯 우리도 내게 맞는 운동을 어디서 누구와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신체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운동 및 건강관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가치”라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네이버 ‘마이박스’ 50GB 무료 제공

**130GB 상품 사용자 대상
80GB·10TB 요금제 출시**

네이버클라우드가 개인용 파일 저장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마이박스’의 130GB 유료상품에 50GB를 무료로 제공한다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로 80GB와 10TB 신규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유료 상품 업그레이드는 130GB(구 100GB)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100GB 이용 고객은 무료 용량인 30GB를 포함해 기존 가격 그대로 50GB를 추가로 제공받아 총 180GB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품명은 총 용량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100GB에서 130GB 요금제로 변경했다. 또한 새롭게 80GB와 10TB 요금제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10TB 요금제는 한 파일당 최대 50GB 까지 업로드 할 수 있어 대용량 파일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신규 출시 상품과 함께 마이박스 사용량이 1GB 이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규 출시된 마이박스 80GB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0만 명에게 제공하며, 마이박스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이벤트 응모기한은 내달 16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개별 메일을 통해 안내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찬일 네이버클라우드 마이박스 센터장은 “사진과 동영상, 문서 등 개인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존 제공하던 무료 서비스가 축소되는 타 서비스와 달리, 마이박스는 자료 저장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비스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참 관찮은 중소기업’ 60%, 하반기 채용 나선다

기업당 4.8명, 대부분 생산직

‘참 관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중소기업 중 60%가량이 올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평균 채용 인원은 기업당 4.8명으로, 대부분 생산 직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참 관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8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채용 동향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참 관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이다. 우량 중소기업 중 정부가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한 기업 3만 개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0.1%가 올해 7~12월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은 평균 4.8명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에서 수요가 높았다.

채용계획이 있는 직무를 물어본 결과, ‘생산’ (75.5%)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연구개발·생산관리(20.0%), 회계·경리·총무(12.0%), 국내·해외영업·마케팅(11.6%), 경영지원·인사(6.9%), 구매·자재(6.3%) 등 직무도 계획 중이다.

중소기업의 선호인력집단과 관련해서는 채용 시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취업계층으

로 ‘경력직(31.8%)’을 가장 많이 뽑았다. 다만, 채용 시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취업계층이 ‘별도 없다’는 기업도 42.7%로 집계됐다.

응답 중소기업의 46.5%는 지난해(2020년)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인원 비중은 필요 인원의 약 86.8%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부족(49.8%)’, ‘지원자 부족(채용 홍보 부족)(44.0%)’ 등을 꼽았다. 직무 적합자 채용과 기업홍보 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82.3%)’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35.6%)’, ‘청년추가 고용장려금(35.5%)’ 등도 나왔다.

채용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등 경기 불확실성 및 일감 축소’가 인력 채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동욱 중기중앙회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매칭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참 관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고도화로 인력이 필요한 우수기업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연계해 얼어붙은 청년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대출한도 업체당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한다. 최초 2%인 대출금리 실행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있

는 소상공인(5000억 원)이 대상이다. 3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5월 중 신청을 받는다.

또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으로 5월 중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 서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공격 경영’ 호텔업계, 성수기 앞두고 ‘4차 대유행’ 암초

‘신라스테이 서부산’ 15일 오픈 ‘조선 팰리스’도 다음달 문 열어 코로나에도 출점 ‘뚝심 경영’ 속 5월 ‘가정의 달’ 영업 차질 우려



호텔업계의 ‘뚝심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영업 타격을 입었음에도 계획했던 출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물론 불안감도 감지된다. 최근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여름 성수기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5월 영업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호텔업계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신규 오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사업 특성에 기인한다. 호텔 사업의 경우 구상부터 허가, 그리고 최종 오픈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린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리스크에도 출점 계획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다. 또한 지난해 해와 올해 감염병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급감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호텔 사업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부산 서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라스테이 서부산’ (사진)을 이달 15일 오픈한다. 부

산 지역에서는 해운대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하는 호텔이다.

호텔신라는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비즈니스 고객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호텔신라 브랜드의 신뢰도를 발판으로 더욱 공고한 인지도를 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의 규모로, 총 295개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라운지 바·야외 수영장·연회장·미팅룸·피트니스센터·비즈니스코너·사우나로 구성된다.

신라스테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신규호텔 오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신라스테이는 이번 13번째 서부

산 오픈 이후에도 여수, 세종, 미국 새너제이 등 향후 3년간 매년 국내·외에 신규 프 로퍼티를 오픈할 계획이다.

조선호텔엔리조트의 럭셔리 호텔 브랜드 ‘조선 팰리스’도 다음달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호텔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다. 총 객실은 스위트룸 44개를 포함한 254개다. 객실은 등급에 따라 스테이트 트마스터스 △그랜드 마스터스 △마스터스 스위트 △조선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 등 9개 종류로 구성됐다.

공격 경영에 나선 호텔업계에 불안감이 최근 감지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자리해 여름 성수기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가정의 달’ 5월 영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00명에 달하며 1월 이후 91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늘리기로 했다.

호텔업계는 불안감 속에서도 방역에 힘써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호텔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약 취소 등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최고급 숙박 시설인만큼 방역에 힘써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갤러리아명품관 고메이494에서 신규 오픈한 스콘&파운드 맛집 ‘월비’와, 오는 15일까지 팝업으로 진행되는 커스터드 크림 쿠키 슈 전문점 ‘유니콘 플랜 드 베이커’.

갤러리아백 ‘디저트 성지’ 등극

‘새들러하우스’ 크로플 매출 2억 스콘 ‘월비’ 등 팝업 매장 잇따라

코로나19와 재택근무로 인해 가볍게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디저트&커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67% 늘었다. 대다수의 디저트&커피 매장이 테이크아웃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테이크아웃 디저트 맛집은 명품관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팝업으로 운영했던 크로플(크루아상+와플) 맛집 ‘새들러하우스’로 SNS상에서 MZ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5평 남짓한 공간에서 외플 하나로 월평균 2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는 30평 규모의 명품 의류 매장 한 달 매출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청담 도너츠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노티드’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전년 대비 169% 신장하며 명품관 ‘고메이 494’ 대표 디저트 맛집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도 명품관에서는 지난해 △프리미엄 무스케이크&프렌치 디저트 전문점

‘카페블라썸’ △강남 티푸드 디저트 전문 카페 ‘썸핑어바웃커피’ △연화동 프리미엄 파베기 전문 카페 ‘파페’ 등 다양한 디저트 맛집 팝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도너츠 맛집 ‘카페노티드’는 광고점 오픈 당시 고객들 사이에 ‘오픈런’ 해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약 30만 명(결제 건수 기준)이 방문했다.

명품관도 디저트 인기 열풍에 맞춰 이달 다양한 디저트 맛집을 선보인다. 1일 신규 오픈한 트렌디한 스콘과 파운드로 유명한 가로수길 맛집 ‘월비’를 비롯해 △다양한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쿠키 슈 전문점 ‘유니콘 플랜 드 베이커’ (1~15일) △프리미엄 수제 그레놀라 ‘그라놀로지’ (5~18일) △성수동 수제 디저트 전문점 ‘구육희씨’ (20일~5월16일) 등 국내 유명 디저트 맛집 팝업을 대거 선보인다.

이외에도 명품관에서는 메밀면으로 만든 테이크아웃 메밀김밥 ‘136길속미’ 팝업을 30일까지 선보이고, 고메이 494 한남 맛집으로 소문난 스테이크 전문점 ‘돈이찌’가 8일 신규 오픈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트렌디한 디저트 맛집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메이 494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백화점 ‘스몰 럭셔리 굿즈’로 2030 공략

남성 편집숍 ‘스마트’ 점포 늘려 모자·키링 등 액세서리 다양화

롯데백화점이 프리미엄 남성 잡화 편집숍 ‘스마트(SMALT)’로 명품 구매의 큰손으로 떠오른 2030세대 고객을 공략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1~3월 명품을 구매한 남성 고객 매출 중 20~30대 비중이 43.2%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의 명품 편집숍 ‘탑스(TOPS)’의 20~30대 남성 고객 매출은 전년 대비 60% 가까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구매 연령층이 젊어지면서 기존의 구두, 브리프 케이스, 넥타이 등에 국한돼 있던 명품 액세서리 범주가 모자, 키링, 팔찌, 휴대폰 파우치, IT액세서리 등 캐주얼 착장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패션의 젠더리스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액세서리의 스타일링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새로운 명품 수요 고객



층으로 떠오른 20~30대 남성들에게 ‘스몰 럭셔리 굿즈’(Small Luxury Goods) 아이템을 큐레이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프리미엄 남성 잡화 편집숍 브랜드 스마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올해 공격적으로 입점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은 중동점에 2호점을 오픈했고, 오는 23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구리점과 중동점 스마트 매장의 구매 고객 데이터를 살펴 보면 오픈 이전 매장의 전년매출 대비 100%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30대 매출 구성비가 47%이며, 롯데백화점에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고객 중 20대의 구성비가 38%로 가장 높아 젊은 고객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 고객의 약 70%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60%는 선물용, 나머지 40%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다. 이에 스마트는 젠더리스 아이템을 지속 보강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나무, 가죽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한 문구류 브랜드 ‘티에이 플러스디’(TA+d)의 만년필, 덴마크 디자인 브랜드 ‘엔트레디션’(&tradition)의 조명, 브러쉬 및 토일트리 제품으로 유명한 ‘아카카파’(ACCA KAPPA)의 천연모 칫솔 등의 아이템이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5월경 수원점에 4호점을 오픈하고 하반기 내 2개 점포를 추가 오픈해 2021년에는 총 5개 점포에 신규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여병희 롯데백화점 치프바이어(선임 상품기획자)는 “개성 강하고 트렌디한 명품 브랜드를 빠르게 소비하는 MZ세대 고객들의 명품 소비 패턴을 반영해 기획한 스마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몰 럭셔리 굿즈 아이템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CU·퍼스트유니온, 앨범 재킷으로 실종아동 찾는다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유통 기업이 실종 아동들을 위해 손을 잡았다.

BGF리테일은 퍼스트유니온과 이달부터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Be your Good Friend)’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한다

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BGF리테일이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평소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퍼스트유니온과 인연이 닿으면서 기획됐다.

퍼스트유니온은 신인 아티스트의 개발부터 제작, 프로듀싱, 마케팅 등을 운영하는 신생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에는 ‘실종아동 찾기’란 공동 앨범명이 붙고, BGF리테일이 제작한 장기 실종아동 포스터가 앨범 재킷으로 실린다.

앨범 재킷은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서 곡이 스트리밍될 때마다 대중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 실종아동의 정보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는 Mnet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 방재민(a.mond)이 나섰다. 방재민은 개인 SNS에 이번 프로젝트의 음원인 ‘NAVY’의 플레이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해당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앨범 커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란 글을 직접 남겼다.

지난 4일 공개된 해당 음원은 공개 당일 한 음원 사이트에서만 약 1만 회가 스트리밍됐으며, 앨범 재킷 노출 수는 약 10만 회로 추정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에어컨 할인” 이마트, 빨라진 ‘여름 시계’

이른 더위에 ‘얼리버드족’ 공략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며 여름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마트는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여름 상품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에어컨, 선풍기, 찜프, 수영복 등의 여름 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이마트 에어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했다. 에어컨과 함께 필수 여름 가전으로 자리 잡은 선풍기 역시 전년 대비 168.7% 증가했다. 최근 ‘세컨드 에어컨’으로 부상한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 144% 신장했다.

이처럼 여름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자 이마트는 여름 가전 ‘얼리버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른 에어컨 행사에 나섰다.

우선 이마트는 4월 한 달간 삼성, LG 등 21년 신상품 에어컨을 삼성/KB카드 구매 시 최대 20만 원 할인과 금액대별 추가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점포별로 보유 중인 에어컨 기준 모델과 진열상품 등 총 800여 대를 최대 30% 할인된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이마트는 엘지 멀티형 에어컨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전기렌지, 공기청정기 등을 동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상품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갤러리에어컨 행사 모델 구매 시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를 추가 증정한다.

이마트 조용욱 가전 바이어는 “3월부터 이어진 초여름 날씨에 에어컨 등 냉방 가전 구매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일찌감치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얼리버드족’을 위해 여름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HINGBOZANG 탈출” 특명, 실적株의 시간이 왔다

반도체·화학·해운·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기업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 타고 1분기 실적 개선 기대 높아 인플레이션·환율 등 변수는 경제

‘다시 실적이다.’ 나라 안팎을 둘러봐도 증시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1분기 기업실적에 온통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장이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 패널 토론회에서 “경기회복이 균일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금융완화를 축소하려면 미국 경제가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격정에 증시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우량주는 대체로 주가 변동 폭이 작을 뿐만 아니라 지수가 반등하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실적주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대 1%포인트(1월 기준 약 8조5000억원)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반도체·화학·철강 ‘주목’=11일 애플 엔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56개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88.9%, 순이익 증가율은 98.6%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적자폭이 컸던 에너지, 운송, 호텔·레저,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해도 50% 안팎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코스피기업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45조원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무려 67% 증가한다.

이 증권사 이경수 연구원은 “1분기 호실적 발표 종목은 ‘매도’보다는 ‘킵 고잉’이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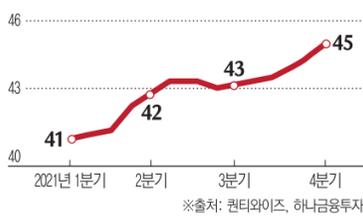
화학, 전기장비, 자동차, 미디어·엔터, 제약·바이오, 기술하드웨어, 반도체, 해운, 디스플레이 등이 기저효과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봤다.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HMM,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LG화학, LG하우시스, 삼성화학, SKC,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로템, 풍산, 대한유화, 기아 등을 관심주로 꼽았다.

현대훈 SK증권 연구원은 “IMF가 4월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강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적시즌에 돌입하며, 국내외 증

코스피 영업이익의 추정치

(단위: 조 원) ※ 컨센서스 기준



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각국의 코로나19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그간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실적 중심의 펀더멘털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다”고 분석했다.

DB금융투자 설태현 연구원은 “실적 시즌을 맞아 연초 대비 목표주가가 높아진 기업 중 이익 기여도는 마이너스, 밸류에이션 기여도는 플러스기업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대감만으로 목표주가 높아졌으나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익 전망치가 조정된다면 기대감이 현실화하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지표 및 금리 등 변수도 많아=그러나 실적만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금리, 환율 등 글로벌 변수들이 워낙 다양해서다.

14일에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3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발표되는 지난달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16일에 나오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88.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증권 허진욱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의 배경에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1965~1982년)의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1965년 이후 북지지출과 베트남전 등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실패로 경기과열이 결국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2년 말까지 의도치 않은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도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16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 지급액이 달러화 수요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 안소은 연구원은 “환율 측면에서 연초 이후 미국 달러화 강세 흐름이 신중국 전체에 부담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별 외국인 수급 변화와 실질실효 환율 변화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금융당국, 현대차 임원 조사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공동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는 혐의와 관련된 의심 정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소의 모니터링과 심리 절차에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 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거래소에서 심리 결과를 통보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에 배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현대차의 주가는 애플카 공동 개발 소식에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월 8일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 12명이 주식 급등기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들이 처분한 주식은 총 3402주로, 처분액은 8억3000만원이다.

이인아 기자 ljh@

‘4년 공터’ 롯데 남양주 부지 개발 속도 내나

롯데건설, 토지매입 계약 체결 퇴계원역 인접 교통 이점 살려 상업 시설·주택단지 등 밀그림

남양주시 퇴계원역 일대



롯데그룹이 성주 골프장과 바꾼 남양주 부지에 개발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수년간 공터였던 땅의 주인이 롯데상사에서 롯데건설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이 취득한 남양주 부지의 활용 방안이 시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와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년 12월 16일 롯데건설은 롯데상사의 남양주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931억4400만 원으로 올 5월까지 계약을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남양주 퇴계원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도 만 4년이 흘렀다. 롯데그룹은 2016년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 148만㎡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내주

고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사용하던 이 땅을 대신 받았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지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교환 대상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 규모로 당시 공시지가는 888억997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계약은 이보다 약 4.7% 오른 수준으로 체결됐다.

롯데건설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본지에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퇴계원역에 인접한 교통 편리성의 이점을 살려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수도권 물류창고,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그룹이 국방부 개발계획에 함께 참여한다는 전망도 주목받고 있다. 2019년 1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하나로 남양주 일대를 꼽은 바가 있다. 이 부지 가운데 롯데그룹의 땅이 있는 만큼 롯데건설이 소유한 부지도 함께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 지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공공주택(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해 6월, 국방부는 남양주시 퇴계원역 일대에 있는 군부지 24만2000㎡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불공정거래 의심 180건 심리의뢰

시감위, 시세조종 감시... 불건전 주문 예방 4987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건(2.3%) 늘어난 수치다. 심리의뢰 시에는 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7건으로 전년(33건) 대비 14건(42.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발견돼 시세 조종에 대한 심리의뢰가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120건으로 전년(135건)보다 줄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체, 투자조합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의뢰가 66.7%(6건→10건)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 코

넥스 시장에서는 6건의 심리의뢰가 각각 실시됐다.

지난해 불건전주문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4987회의 예방조치가 시행돼 전년(4735회)보다 5.3% 늘었다. 현물시장은 4569회, 파생상품시장은 418회로 각각 2.5%(111건), 50.9%(141건) 증가했다.

현물시장에서는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 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2301건)가,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서로 연계된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249건)가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912개 계좌(543개 종목)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주문 불가) 조치를 시행했다. 수탁 거부 예고 조치가 내려진 계좌 수는 765개 계좌(499개 종목)였다. 손영지 기자 eom@

금감원, 기업 회계리스크 감시 강화

재무제표 심사 3개월 내 종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계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는 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

터링이 강화된다. 장기간 심사·감리 미 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취약 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를 통해 회계분석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고 편의성도 높이고, 관계기업과 협조를 통해 정보 입수 채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회계리스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ljh@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도 도모한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심사대상 선별 방식도 손질한다.

‘신(新)회계분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기업 분석 예측률을 높이고 이상징후 포착 방식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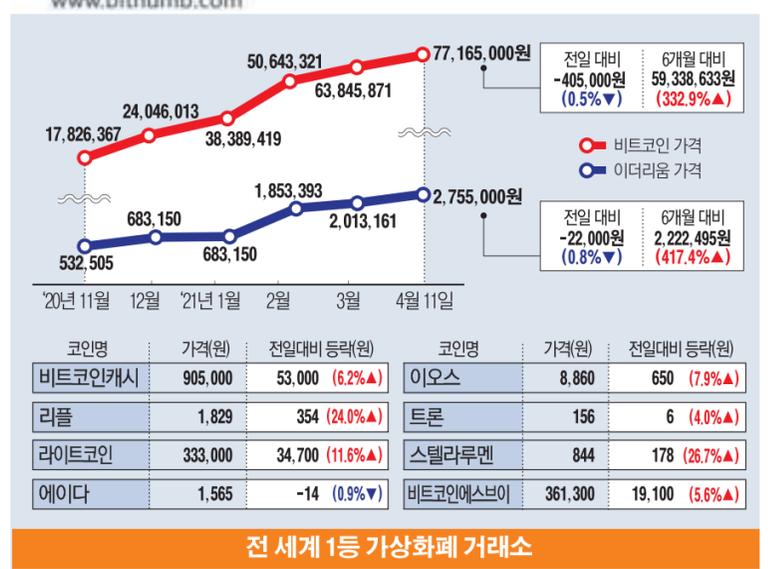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하고, 시의성 있는 테마 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심사 이슈는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이연법인세(전 업종) 등이다.

한편,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80개사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32개사가 늘어났다.

이인아 기자 ljh@



빗썸 지수 (2021년 4월 11일 17:00, KST)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의왕·안산·시흥은 '초강세'

의왕, GTX 기대감에 올해 상승률 13% '전국 최고'
안산, 신안산선·GTX 교통 호재, 10% 가까이 올라
시흥, 투기 논란에 주춤했지만 신도시 인접지 '꿈틀'

의왕·안산·시흥 등 경기 서부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이들 지역 집값은 개발 호재를 타고 강세를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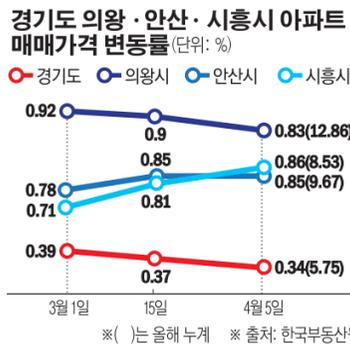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5일 기준) 0.83% 올랐다. 주택시장 관망세와 함께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1%에 달하는 가파른 오름세가 매주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13%에 달한다. 전국 최고치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마찬가지다. 이들 두 지역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85%, 0.86%로 올 들어 벌써 9.67%, 8.53%로 10% 가까이 올랐다.

의왕·안산·시흥시 집값이 뛰는 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공통분모로 작용했다. 의왕시 내손

동 A공인 측은 "월판선(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동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데다 GTX C노선 추가 정차 기대감이 의왕시 일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의왕시에선 평촌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내손동, 과천시와 인접한 포일동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내손동 '대원칸타빌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6억8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7억 원을 눈앞에 뒀다. 내손동 '의왕내손 e편한세상'은 지난해 대형 면적들이 매매가 10억 원 클럽에 줄줄이 합류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중형인 전용 84㎡형이 10억 원 넘는 가격에 잇따라 팔렸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포일 자이' 아파트값이 먼저 오르고 이어 인근 단지들이 따라 오르는 식으로 집값이 움직인다"면서 "포일



자이 전용 84㎡형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최고 12억 원 수준이고 매물도 많지 않아 의왕시 일대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시에선 서울 여의도와 안산·시흥을 잇는 신안산선 철도사업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GTX-C노선 역사가 도시철도 4호선인 상록수역에 신설될 것이라 소문이 나돈 뒤 집값이 크게 뛰었다.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전용 84㎡형은 지난달 최고가인 9억7800만 원에 팔리며 10

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작년 신고가(8억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비싸다.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전용 84㎡형도 지난달 신고가인 8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개통 등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시흥시 아파트값도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매수 수요가 잠시 주춤했지만, 정부가 최근 예정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요가 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시흥은계지구 '시흥은계 우미린 레이크' 전용 115㎡형의 신고가는 8억 원(지난해 말)→9억4800만 원(올해 1월)→10억1000만 원(3월 11일)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시흥 배곧신도시에선 서울대 병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발표를 앞두고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GTX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심도 건설의 안전성 등의 대국민 홍보 및 안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는 대부분 단단한 암반층에 위치해 일반 지하철도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피난안전구역 등 다양한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대심도 터널 건설, 운영 및 지하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중심으로 한다. 그 외에도 기술, 운영 및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작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창의성, 수용성, 효과성, 파급성 총 5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한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Time is our tradition

1924년 탄생한 정통 스위스 독립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GROVANA)는 스위스 테니켈(Tenniken)의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lleville 3hands STEEL CASE 1765.1594 41.5 mm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금주의 분양캘린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이번 주에도 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번 주엔 1만4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35개 단지, 1만4789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대부분 행복주택 물량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3814가구다. 민영주택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와 경기 용인시 감량동 '용인드마크 데시앙',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 수성' 등이 1순위 청약에 나선다.

30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 경기 오산시 청학동 '호반써밋 그린빌', 경남 창원시 교방동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로 르오네뜨' 등에서 청약 당첨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19곳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해링턴타워 서초' 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3단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 센트로'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12개 단지에선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 시티프라자',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 린 파빌리에', 세종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6-3 M2 공공분양주택' 등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아파트명				
4/12 (월)	접수	서울	관악구	관악중앙하이츠포레 1순위 (당해지역)	4/14 (수)	발표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디에트르더클래스				
			김포시	김포마송B3(행복주택) (~4/21)				서울	서초구	해링턴타워서초 ♣			
			안양시	안양명학A1(행복주택) (~4/21)				오산시	호반써밋리테라스				
			경기	남양뉴타운B10(행복주택) (~4/21)				서울	중랑구	서울왕원S1(국민임대) (~4/16)			
				남양뉴타운B9(행복주택) (~4/21)				서울	왕원S1(행복주택) (~4/16)				
				화성시				화성동탄2A57-1(행복주택) (~4/21)	대구	동구	동대구역골드클래스 ♣		
	접수	대구	동구	동대구역골드클래스 1순위 (기타지역)	4/15 (목)	발표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경기행복주택				
				동대구역골드클래스 ♣				남양주시	다산지금A5경기행복주택				
			중구	대구역한라하우젠트렌트로 ♣ (~4/13)				파주시	파주운정디에트르포레				
			충남	공주시				공주월송A4(영구임대) (~4/15)	하남시	하남덕풍경기행복주택			
								공주월송A4(행복주택) (~4/15)	계약	서울	서초구	해링턴타워서초 ♣ (~4/16)	
				천안시				천안역세권지역전력산업지원(행복주택) (~4/21)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A3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4/21)
제주시	제주시	e편한세상연동트렌트파크(1단지) 1순위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A4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4/21)							
제주시	제주시	e편한세상연동트렌트파크(2단지) 1순위	4/13 (화)	발표	경기	도봉구	쌍문시티프라자						
제주시	제주시	이안다프리미스노형				남양주시	덕소강변리온프리미엄						
계약	경기	고양시				고양덕은A1(국민임대) (~4/15)	남양주시	덕소강변스타힐스					
		의왕시				의왕초평A3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4/16)	양주시	양주옥정린파빌리에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3단지 (~4/20)				포천시	포천금호호울림센트럴						
접수	서울	관악구				관악중앙하이츠포레 1순위 (기타지역)	4/16 (금)	연수	인천	도봉구	쌍문시티프라자		
		서초구		해링턴타워서초 ♣	도봉구	쌍문시티프라자							
		경기		용인시	용인드마크데시앙 1순위 (당해지역)	세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6-3M2(공공분양)		
		대구		달서구	한양수자인더펠리시티 1순위	접수				대구	동구	동대구역엘크루에비뉴원 2순위	
		대구		동구	동대구역골드클래스 2순위							서울	강남구
		발표		경기	오산시	호반써밋그린빌				발표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A1(국민임대)
부산	부산					LS네트럴힐(공공분양) (~4/16)	세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3-3M2(국민임대)				
4/14 (수)	접수	서울	관악구	관악중앙하이츠포레 2순위	계약	대구	중구	대구역한라하우젠트렌트로 ♣					
			경기	용인시			용인드마크데시앙 1순위 (기타지역)	발표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A1(국민임대)		
			달서구	한양수자인더펠리시티 2순위			계약				대구	중구	대구역한라하우젠트렌트로 ♣
			대구	동구									동대구역엘크루에비뉴원 1순위 (당해지역)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REPS

“금융사 경영권 장악 못했다면 ‘대주주 변경 승인’ 의무 아냐”

사내 경영사항 등 관여했으나 구속력 있는 결정 행사 안 해 “자본법상 대주주 인정 안돼”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금융투자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케이비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

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펀드 사기가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으로 최 씨는 이회진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할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자본시장법 9조에 따른 주요주주(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 씨가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선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에게 회사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를 주요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투자약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의사대로 선임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대표이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독립의 역사’ 담긴 태극기 입장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오른쪽부터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현재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유행’ 조짐에 등교수업 불안 고조

학부모 “지역사회 감염 늘어 걱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일간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계속해서 매일 등교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내외를 기록하는 상황인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등교 일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2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하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사회나 가정 내 집단 감염이 학교나 학원을 통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초2 자녀를 둔 이연지(39·가명) 씨는 “지나해에도 확진자 수가 순식간에 900~1000명대로 늘었던 것을 보면 방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교내 감염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어 학교 보내기가 솔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는 “지나해보다 정부가 코로나19 교내 감염과 관련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다”며 “학부모들이 아예 학교 문을 닫고 자녀가 원격

수업만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만(코로나19 확산에)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애초 교육 당국이 추진하던 ‘1학기 내 전 학년 등교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 시교육감은 지난달부터 ‘중1 매일 등교’를 주장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학교 등교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져 자 등교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등교확대는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등교확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33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루 평균 47.9명꼴이다. 새 학기 누적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141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간 교직원 확진자는 50명으로 하루 평균 7.1명 발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법원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의 재량”

정부 지침 무조건 적용 안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김천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제요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료를 통보했다.

이후 관제요원 A 씨 등은 김천시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관제요원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천시의 채용공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 가능 기간의 상한이 2년이라는 취지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 등의 계약 종료 이전에도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되지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학신(新)론

광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가장 경쟁력이 무의미한 뉴노멀 시대의 마케팅 전략
-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 신유형 광고와 커머스 세계
- 4대 매체를 넘어서는 해체형 특성과 미디어 플랫폼
-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원리

디지털 시대의 광고학신론
김병희, 유승엽 외 공저 | 544쪽 | 28,000원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생생한 광고 현장의 이야기!

디지털 시대의 광고 마케팅 기상도
김병희 지 | 14,000원

기업을 살리는 설득의 기술
조재형 지 | 14,000원

광고의 미래 넥스트 10년
한국광고학회 편저 | 15,000원

디지털 변화 속 광고PR 산업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저 | 17,000원

(주) 학지사 | 02-330-5114 | Fax 02-324-2329 | SINCE 1992

하나금융그룹

Green + Digital

뉴딜 투자, 글로벌하게 하나로~ 담자!



K-뉴딜을 넘어 '글로벌 뉴딜' 투자로!

하나뉴딜글로벌테크랩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테마

투자포인트 「그린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1.0%, 후취 연1.5% • 성과형 : 후취 연1.5%+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에 관하여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증개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증개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90호(2021.01.21~2022.01.20), cc브랜드210121-0151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여가부 폐지론, 여성·가족 위해 제 역할 하라는 것”

국회 여성가족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성폭력특위장 맡아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 통과 이끌어
“이번 재보선, 대선 가늠자... ‘국민의 심판’ 답 나와 있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심판으로 이어진 선거인 만큼 반문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야권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온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진단은 명쾌했고, 결과 예측은 정확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현 정권에 대한 실망, 불만, 불안, 분노가 쌓인 국민 심판의 자리라는 그의 진단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 정권 심판은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야권 연대를 이뤘듯 앞으로는 더 큰 연대, 더 낮은 자세, 더 넓은 개방으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야권 승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이 때문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대부분 없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특화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라며 “유교국가로 오랜 기간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사회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폐지보단 제대로 기능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인데,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 특히 20~30대가 폭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한 여가위 의원들은 올 초 여가부가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선점은 △단체장 가해 시 국무총리·여가부 즉각 보고 △외부인 가해 시 여가부 직접 대응 △피해자 대상 질문 시 규정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 재정립 등 3가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82년생 김지영 못지않게 66년생 김정재도 할 말이 많다”며 “여성들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년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도 많이 냈다.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통과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작정하고 특히 남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86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며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

에, 거의 당론 수준으로 제출한 적은 처음이며 법을 심사하는 법사위 의원들까지도 이례적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끊임없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뛰어들 각오가 단단히 돼 있다. 그는 “82년생 김지영 못지않게 66년생 김정재도 할 말이 많다”며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말을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민이 지금보다 공정한 세상에 산다는 걸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밝혔다.

허유미 기자 jscs508@

최태원·정의선·구광모, 지난달말 ‘박용만 상의 회장 퇴임 축하’ 회동

최태원·정의선·구광모 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지난달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모임은 정의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한상의 회장직을 마친 박용만 회장과 새로 대한상의 회장에 오른 최태원 회장을 위한 자리다.

4대 그룹 총수들은 수시로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동도 그 목적으로 전해졌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박용만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박용만 회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재계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우즈 사고 당시 가방서 약병 발견
“경찰 사고조사 과정서 특혜” 지적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자동차 전복 사고 당시 우즈의 가방에 약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우즈의 차 사고를 조사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22페이지 분량의 사건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2월 23일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옆 담뽀에서 빈 플라스틱 알약 병이 들어 있는 우즈의 배낭을 회수했으며, 해당 약병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7일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빈 약병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우즈가 음주나 약물 복용 증거가 없다면서 별도의 혈액 검사를 생략했고, 사고 조사 발표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사고 세부 내용은 경찰이 우즈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골프 황제 타이틀을 보유한 ‘타이거 우즈 효과’가 경찰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

英 필립공 장례식 17일 친족만 참석 왕실장으로

美에 있는 해리 왕자 참석, 임신 중인 마클은 불참할 듯

지난 9일(현지시간) 99세의 일기로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에든버러 공작)의 장례식이 17일 런던 근교 윈저성 내의 성조지 예배당에서 치러진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일반 참례나 시신 공개 안치 등은 없을 예정이며,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왕실 버킹엄궁은 필립공의 장례식이 17일 오후 3시 1분간의 묵념과 함께 시작하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킹엄궁은 “장례식은 국장이 아닌 왕실장으로 거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규제에 따라 참석자는 여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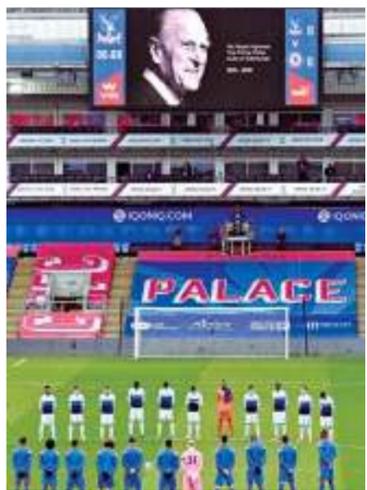
장남인 찰스 왕세자 등 왕실 친족 30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식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적용, 참석 인원을 30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고인의 손자인 해리 왕자도 미국에서 돌아와 참석하기로 했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그의 아내 메건 마클은 건강상의 우려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인터뷰에서 왕실 내 인종차별 의혹 등을 ‘깜짝 폭로’한 이후 해리 부부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들 부부가 설립한 자선단체 ‘아치웰’은 홈페이지를 통해 “에든버러 공작의 봉사에 감사하며,

매우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1921년 그리스에서 태어난 필립공은 올해 6월 100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194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결혼한 뒤 영국 왕실의 일원으로서 오랜 기간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 왔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말년까지 공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는 96세가 돼서야 왕실 공식 업무에서 은퇴했다. 지병인 심장질환과 감염증 치료를 위해 올해 2월 한 달간 입원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지난달 중순 퇴원했으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필립공은 영국 뿐만 아니라 영연방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여왕과 왕실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공인이자 헌신적인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었다”고 애도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필립공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성과관리지원과장 천세봉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지역 일자리경제과장 이화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이형석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하승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김상광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박민식 ◇서기관(행정)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실 박성철 △혁신기획과 이성락 △협업정책과 이은희 △조직기획과 이영수 △국제 디지털협력과박원재 △공공데이터유통과 조현태 △자치행정과 조은강 △자치분권 제도과 문지영 △자치분권지원과 신화영 △지역균형발전과 김경섭 △회계제도과 최교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 △공기업지원과 김만봉 △인사기획관실 김근영 △운영지원과 김일용 △기후재난대응과 배기철 △재난구호와 이경환 △가축 질병재난대응과 안승만 ◇기술서기관(전산) 승진 △지능행정기반과 임란희 △공

공데이터정책과 황인희 △국가기록원 보존인수와 서훈석 ◇기술서기관(시설) 승진 △생활공간정책과 권하중 △안전감찰 담당관실 이준용 △비상대비기획과 박정운 ◇기술서기관(공업) 승진 △정부청사 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정정환 ◇기술서기관(방송통신) 승진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산현동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대도시 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이운상

◆해양수산부 ◇국장급 채용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준옥 ◇과장급 승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양진영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최규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임용 △고객지원담당관 연제혁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정보민원담당관 오옥연 △개발전략국 계획총괄과장 김준성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장 유훈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김

청태 △안전관리단장 김철환 △광주지역본부장 이종희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장 이경호 △보도본부 취재1주간 안양봉 △보도본부 방송뉴스주간 유석조 △전략기획실 대외협력부장 홍희정 △보도본부 보도기획부장 임승창 △보도본부 정치부장 송현정 △보도본부 통일·외교부장 이병도 △보도본부 사회부장 정수영 △보도본부 네트워크부장 양석현 △보도본부 국제부장 김진우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진영 △보도본부 뉴스제작1부장 김정환 △보도본부 뉴스제작2부장 이해연 △보도본부 디지털뉴스1부장 조성훈 △보도본부 탐사보도부장 이영섭 △보도본부 스포츠제작사업부장 권재민

◆TV조선미디어랩 △국장 김형태 △부장 황보홍

◆NEWS 더원(구 더원일보) ◇임용 △편집위원 김상돈 △문화팀 부국장 이해용 △인턴취재본부장 장철순 △인턴취재본부 에디터 이충환 △ “국장 박달화 △총정취재본부 공주·청양·부여 부장 김은지

부음

4선·인천 정계 원로, 서정화 前 의원

인천 정계 원로 중 한 명인 서정화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경기도 양평 출생인 서 전 의원은 인천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군 생활을 거쳐 1978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1985년 12대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뒤 13·14·15대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4선을 달성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부총재에 오르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정자 씨와 3남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12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032-890-3180

▲김문영 씨 별세, 함문자 씨 남편상, 김수연·지연·승연·용식(개인 사업) 씨 부친상, 백서룡(한국자산관리공사 대외협력위원)·김지형(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팀장) 씨 장인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영민 씨 별세, 이민석·재철(제이씨 컨설팅 대표·전 근대이 체육부 기자)·숙희 씨 모친상 = 10일,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호,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02-857-0444

▲염주동(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 씨 별세, 염슬기(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윤정(서영이엔티) 씨 부친상 = 11일, 대구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206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053-200-6464

▲두효순 씨 별세, 임대홍 씨 부인상, 임아영(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영주(광명운산고 교사) 씨 모친상, 황경상(경향신문 콘텐츠전략팀장) 씨 장모상, 김민정 씨 시부상 = 9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2-6986-4457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상반된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 첫째는 기술의 자립자강 전략이고, 둘째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침투 강화 전략이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를 잃었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네. 말이 없어서 기사를 못 보냈네. 기사를 못 보내서 전투에 패했네. 전투에 패해서 왕국을 잃었네. 못 하나가 없어서 전부 다 잃었네.”

대통령령 'America's Supply Chain'에 따라 이날부터 100일 이내에 미국은 위 4개 분야 공급망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질은 고용문제, 가구 소득문제 그리고 소비문제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기폭이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도 된다. 그러나 생산 측면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1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도 반도체 제조에 강점을 보인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구세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약점이 있다.

작년부터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재의 영향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화웨이는 스

마르폰 부품 공급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문량을 60% 줄일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로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상반된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 첫째는 기술의 자립자강 전략이고, 둘째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침투 강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자립 전략에는 기술

탈동조화(tech decoupling) 전략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강화 전략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했던 클린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이번 행정명령과 같이 공급망에서 중국 관련성 낮추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말편자의 못'에 비유했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를 사람의 '심장'에 비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YMTC의 자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대방로

김희정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전문센터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4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중 하나인 로제의 솔로곡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메타버스(Metaverse)와 금융이해력

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3D) 가상세계를 말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기성세대에게 다소 낯설고 생소한 개념의 메타버스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중 제페토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 빅히트·YG·JYP 등의 엔터테인먼트사가 170억 원을 투자한 내용 등을 접하게 되면서 소속 아이돌 그룹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로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기도 하였다.

많은 MZ세대들이 가상의 세계 안에서 왜 열광하고 있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도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주변 소문에 현혹되어 낭패를 보거나, 투자 성공담에 동참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이종욱(李鍾郁) 명언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기는 법이다." 의사. 대학 다닐 때부터 한센병 환자의 료봉사를 했던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대표가 되었다.

☆ 고사성어 /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뜻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층 더 분발하도록 다그치거나 일깨워 북돋워 주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대기업의 개발자 모시기와 몸값 튀기가 심화하고 있다. IT·게임업계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국내 선두 IT 기업 네이버는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900명의 개발자를 뽑을 계획이다.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 올린 쿠팡은 수 천만 원의 입사 보너스와 스톡옵션 등을 내세우며 고급 개발자 모집에 나섰다.

기자수첩

고종민 IT중소기업부/kjm@



대기업의 개발자 모시기와 몸값 왜곡

인 평가도 있으나 막무가내식 몸값 올리기 시장이 왜곡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개발자 생태계가 더욱 왜곡될까 우려된다.

현장에서 만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개발자 몸값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한 스타트업 경영자는 연봉 인상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탈모가 왔다고 한다. 판교와 강남 IT 기업들이 줄줄이 연봉을 인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동안 확대받은 개발자의 연봉 상승 기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의 개발자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건전한 개발자 인력 풀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 시사상식 / 스몰 라이선스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리말 유래 / 한풀 꺾이다 한창이던 기세나 투지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옛날에 옷을 손질하던 방법에서 나왔다.

☆ 유머 / 알미운 변호사 식당에 온 두 변호사가 음료수 두 개를 주문하고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각자 꺼내 먹기 시작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차기 금감원장의 조건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교체에 코앞이다.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윤열 전 의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부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석현 원장도 연임에 강한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안팎의 여론은 싸늘하다. 오죽했으면 현재에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각을 세웠을까.

금융감독원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조직이 굵은 끝에 터진 잇따른 스캔들(라이프·옵티머스 사태 등)에 금융 시장에선 금감원이 과연 감독당국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책 수준을 넘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는 조롱까지 듣는다.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때문에 금융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사람을 잘 뽑아 쓰는 것은 리더(대통령)의 큰 덕목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최고경영자(CEO)의 핵심 능력으로 인재 확보 능력을 꼽았다. “위대한 회사는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만드는 사람은 어떤 회사라도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이 시장도, 기술도, 경쟁도, 상품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다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들어 두는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콜린스 교수의 주장처럼 유능한 인재를 많이 확보해 큰 성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국의 삼국시대 위나라를 이끌었던 조조이다. 조조는 정치와 세상의 근본을 인재에 뒀다. 천하의 인재를 찾아내 등용하는 것이 세상의 패권을 쥐는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정치는 물론이고 전투에서도 늘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조조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발표한 구현령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탈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천민 출신이거나 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인자하지 않고 불효해도 좋다. 청렴, 결백하지 못해 비웃음을 받아도 좋다. 오직 치국용병의 역량만 있다면 천거하여 그냥 있도록 두지 말라.” 아버지처럼 죽인 패륜아라도 재능이 있다면 등용하겠다’는 구현령은 400년 유교사회에서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조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덕분에 조조는 생전에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였던 사마의가 촉을 멸망시키고 오를 병탄해 중원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금융검찰’의 지휘자인 금융감독원장. 자리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음 금감원장은 못다 풀 숙제인 금융감독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지난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론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도 맞서야 한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앞질러 달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는 삼고 초려를 해 일을 맡기겠다”고 한 대로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금감원장 후임 하마평에 여전히 코드 냄새가 짙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정치나 경제처럼 금융감독을 하는데도 레임덕이나 잡음이 있어선 안 된다. 흔히 경제레임덕으로 불리는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위기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다. 개혁도 좋지만, 금융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한 인재가 필요한 때다. 시장에서는 ‘독불장군’이나 ‘담임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금융권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mh@

사설

LG·SK 특허분쟁 합의, K배터리 도약 힘모아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의 생산과 수입금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한을 하루 앞두고서다. SK의 LG에 대한 배상금은 현금과 로열티 1조 원씩 모두 2조 원이며 향후 10년간 추가 정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는 조지아주 공장건설 등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가 후발 기업인 SK를 상대로 자사 직원과 기술을 뺏아갔으며 2019년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진 합의다. ITC는 지난 2월 SK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향후 10년간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수입을 금지토록 판결했다. 그러자 조지아주가 SK의 공장건설로 만들어지는 수천 개의 일자리와 혁신 제조업에 대한 투자, 전기차 공급망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줄곧 양사의 합의를 요구해왔다.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두 회사가 분쟁의 파국을 피하고 대승적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물론 특허 침해는 기업의 생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LG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양사가 진통 끝에 소송을

매듭짓기로 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분쟁을 봉합한 것은 ‘K배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보장하는 핵심 산업이다. LG와 SK, 또 삼성SDI 등 국내 3사는 작년 세계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 CATL과 글로벌 1위를 놓고 다투는 LG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다. 삼성SDI와 SK도 대규모 투자로 선두권으로의 도약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차세대 전기차에 LG와 SK의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상당량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CATL을 협력 파트너로 선택했다.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의 자급 전략이지만, LG와 SK의 분쟁에 따른 공급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칫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온 K배터리가 중국 등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위기 신호다. 그런 점에서 양사는 이번 분쟁 종결로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시장 장악과 기술개발의 우위를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협력의 시너지를 키워 산업경쟁력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적인 과제다.

노트북을 열며

곽도흔
정치경제부 차장



수소차나 전기차나, 여전한 질문

‘수소차가 우리의 미래일까?’ 자동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로서 문재인 정부 내내 든 생각이었다.

최근에 국내에서 알아주는 자동차전문가 중 한 분을 만났다. 이분께 물어봤다. “수소차예요? 전기차예요?” 이분의 대답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합친 하이브리드였다. 왜 수소차는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전문적인 얘기를 빼고 기자의 뇌리를 스친 것은 수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 수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내 수소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수소차 충전소를 450곳에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450곳은 2년 전 발표한 310곳에서 겨우 140곳을 늘린 수준이다. 맞다. 2025년이 돼도 충전소 찾기는 힘들 것이다.

생각해 보면 수소차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에도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아니 많아야 한다. 당분간은 수출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수소차가 트럭 등에는 맞다

고 하는데,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 반만 맞다고 한다. 트럭 등 대형 상용차 시장만 놓고서는 파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전기차보다 모든 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형 상용차 시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 분이 얘기해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자면 수소차의 시작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선진국에 전기가 남아돌자 이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줄이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꼴찌 수준이다.

그동안 수소차의 문제점을 칼럼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우석훈 성결대 교수(경제학)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수소 1톤을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11톤이 나온다. 당황스럽지만 사실이다. 또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이걸로 연료전지를 작동시키는데 발열 손실 60%에 송전 손실 5%가 발생, 원래 에너지의 30~35%만 발전에 이용된다. 천연가스와 전기를 그냥 쓰면 효율이 높다. 지금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수소가 기술적 이득은 있다. 수소는 고압으로 액화하면 자체 에너지의 30~40%가

손실된다. 액화수소의 경우는 저장 과정에서 하루에 1%씩 손실이 생긴다. 현재 배터리보다는 낫지만, 어차피 장기 저장은 어렵다.

그나마 충전시간이 장점인데 우 교수는 그마저도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450곳은 어디에 짓느냐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언뜻 수소 폭탄이 생각날 만큼 수소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안 좋다. 당장 우리 집 근처에 수소충전소를 짓는다면 기차도 반대할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시내에 액화석유가스(LPG)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도 별로 없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2003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수소차를 강조한 적이 있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수소차는 쏙 들어갔다.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제3지대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의외교 같은 꼴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 교수는 조선시대 기묘사회를 본떠 ‘수소사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소차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soqood@

미리 보는 한 주 금통위, 기준금리 일곱번째 동결 유력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월간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고용부는 12일(월)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앞서 2월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149억 원으로 지난해 9월(1조1663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3차 확산,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만료 등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폭 늘면서 지출액도 다시 증가한 것이다. 구직급여는 신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늦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일(수)에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2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98만2000명이 감소한 1월과 비교하면 2월에는 감소 폭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3월엔 비교 시점인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19 사태 영향권에 접어든 만큼 올해 상대적으로 지표 호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제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볼 수는 없었다.

한은 금통위는 15일(목) 회의에서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지원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상대로 동결이 결정되면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금)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 심리도 개선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부진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었다. 기재부의 경기진단이 기존의 판단을 유지할지 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을지 관심이 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내 꿈엔 한계가 없다

나는 설악고 3학년 육상선수 박원진

나에게는 친구이자
0.001초를 다투는 라이벌이 있다

하지만 내가 두려운 것은
라이벌이나 승부가 아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넘지 못하는 것

내 꿈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설악고 100m 육상선수, 박원진